116
Dup

DUPLICATE
DIVISION OF ORIENTALIA

2 - SEP 27
Copy 1962

소년단

1961.2

앙고라 토끼를 더 많이 기르자

가늘고 질 좋은 실 10만m

털 장갑 20~30컬레

아동용 외투 2~3벌

녀자용 자케트 3~5벌

앙고라종 토끼 털 1 kg이면

고급 녀자 목도리 4~5개

양말 20~25켤레

공산주의 건설의 후비대가 되기 위하여 항상 준비하자!

소년단 1961년 2호 내용

100만 톤의 알곡 증산에 떨쳐 나
선 정평 사람들……………………(2)
그림 이야기—그는 첫 아동단원이였다
…글 박 웅호, 그림 최 순천(4)
붉은 마음 한뜻으로
뭉쳐 ……………………김 준규(7)
그림 이야기—리 수복 영웅
……………………그림 맹 동원(11)
《꼬마 7개년 계획》 활동을
잘 해 나가자……………………(13)
그림 이야기—경각성 높은 세 소년단원
…글 장 영환, 그림 리 동춘(16)
소설—붉은 넥타이……김 룡익(18)
세계 최초의 우리 나라
금속 활자………………윤 세평(24)
나도 훌륭한 꼬마
《예술가》가 되였다……허 옥숙(26)
그들은 분단 계획을
이렇게 세운다…………라 재국(29)
유쾌한 구락부
바라이데—500만 톤 고지를
향하여………김 대유, 김 혜관(34)
음악 이야기(2)—악보 읽는 법(38)
현상 문제……………………(40)

표지 1면—그림극 《리 수복 영웅》………………리 동춘
표지 2면—앙고라 토끼를 더 많이 기르자………리 종록
표지 3면—피마주, 해바라기를 더 많이 심자 …원 광수
표지 4면—천불 숙영지……………………………리 석호

100만 톤의 알곡 증산에 떨쳐 나선 정평 사람들

소년단원 동무들! 나는 이번에 천리마의 기적으로 가득찬 우리 나라 곳곳을 려행하면서 가는 곳마다에서 우리 당 중앙 위원회 12월 확대 전원 회의 결정을 받들고 100만 톤의 알곡 증산에 일떠선 힘찬 모습을 보았습니다.

강'가와 웅덩이들 마다에서 개'바닥 흙을 파내며 떠들썩하는 소리, 새 땅을 일쿠느라고 신바람이 난 사람들의 웨침 소리로 강산은 들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합들 마다에서는 랭상 모판 준비에 바쁘고 농기계 작업소들에서도 분주히 서두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어요. 그 험한 풍산 산'골에도 비료를 싣고 오고 가는 자동차 뜨락또르의 발동기 소리가 분주했어요.

나는 흥성한 우리 나라 곳곳의 전야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바라보고 있는 사이에 어느듯 함남 정평에 이르렀답니다.

참말 소문에 듣던 것처럼 정평 사람들을 보니까 당이 제시한 100 만 톤 알곡 증산을 위해 한결같이 떨쳐 나서 일하고 있었어요.

넓다란 광포 호수'가와 개울'가 웅덩이마다에 오색기가 날리고 따찌까, 썰매, 밀차, 리야까 등을 밀고 앞을 다투어 오고 가는 사람들, 곡괭이와 삽을 들고 불이 나게 거름을 파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 어요.

거름을 파 내는 수천 명의 사람들 가운데는 어머니 아버지들의 일'손을 도우면서 랑랑한 노래를 부르는 소년단원들의 모습도 뚜렷이 보였어요. 《소문이 난 이 정평의 소식을 알겸 자랑스러운 우리 소년단원들을 만나고 가자》고 생각한 나는 손을 힘껏 내 저으며 헤레꼽타에서 내렸어요.

이들은 정평 중학교와 성남 중학교 소년단원들이였는데 나를 만나자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랐어요.

《우리는 지금 100 만 톤 알곡 증산을 위해 모든 힘을 다하고 있는 아버지 어머니를 돕는 일을 하고 있단다. 우리는 아침 조기 청소 때도 비료를 모으고 집에서 흙을 굽고, 마른 나무 잎도 모으고 있어, 우리는 분단끼리 서로 경쟁하면서 비료를 모으고 있어, 그리고 소년 선전 예술 대원들은 100만 톤 증산에 대한 내용을 담은 바라이떼, 노래, 춤을 가지고 선전 활동을 하고 있단다.》

《너희들은 참 훌륭한 일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동무들을 만나 이야기를 주고 받고 있는데 종 소리가 들려 오더니 비료를 파내던 모든 사람들이 일을 끝내고 들판에 모여 드는 것이였어요.

이날은 모든 사람들이 모여 비료 생산 경기를 한 것이 였어요.

하루 경기에서 한 사람이 70톤의 비료를 생산한 자홍리 아저씨들을 비롯해서 여러 아저씨들에게 표창이 있은 후 정평 중학교 《소년 선전 예술대》 동무들의 예술 써클 공연이 시작되였습니다.

선전 예술 대원인 6분단 리 순근 동무가 먼저 나타나더니 이야기를 하는 것이였어요.

《오늘도 당이 제시한 100 만 톤의 알곡 증산을 위해 힘껏 일하신 아버지 어머니들! 우리 조선 로동당은 인민들의 생활을 보다 풍족하게 하며 조국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 100만 톤의 알곡 증산에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 부름을 받들고 일떠선 우리 정평 인민들의 생활을 담은 바라이떼 〈수상님이 다녀 가신 후〉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순군 동무는 참 멋있게 소개하는구나!》 하고 내가 감탄했더니 《순군 동무는 모범 선전 예술 대원이란다. 이런 모임에서만 연설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도 서른 여섯 집이나 다니면서 100만 톤 증산에 대한 선전을 하고 있어.》하고 8 분단 위원장인 리재해 동무가 말하는 것이였어요. 바라이떼 내용은 진난 해 가을 김 일성 수상님이 정평에 직접 오셔서 돌아 보시고 100만 톤 증산을 위해 모든 힘을 다 해야 한다고 하신 말씀부터 시작 되였어요.

이 말씀을 받은 정평 사람들은 많은 새 땅을 얻으며 4,342정보의 토지를 보다 기름지게 하여 알곡을 많이 내자고 하면서 정당 50톤의 비료를 내고 7톤 500kg의 알곡을 내겠다고 결의하고 모든 힘을 다 하고 있는 것이였습니다.

3만 메터의 제방 공사를 하여 토지를 보호하고 제초기, 사료 분쇄기, 과수 구뎅이 파는 기계 등 새롭고 편리한 호미낫 등 30 여 종의 새로운 농기계를 창안하여 쓰는 것이였습니다. 게다가 나라에서는 우리 나라 농촌의 곳곳에 2,900 대의 큰 뜨락또르와 4,600 대의 소형 뜨락또르, 1,000 대의 자동차를 보내는데 정평에도 96 대의 뜨락또르와 150 대의 파종기가 새로 차례지게 된다는 것이였습니다.

선진 영농법으로 농사 짓기 위해 《선진 과학 기술 보급실》을 만들고 우량 종자를 고르며 토양을 분석하며 랭상모에 대한 공부도 하는 등 정평 사람들의 투쟁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 주었어요.

이들은 바라이떼에 뒤'이어 하천을 정리하여 220 정보의 토지를 수리 안전 답으로 만든 독산리 민청원들을 위해 가야금 병창을 연주하고 밤에도 광포 호수'가의 얼음을 까고 들어가 하루 28 t씩의 (계획보다 8배)거름을 생산한 한 윤경, 최 상현 아저씨들을 위해 독창을 불렀습니다.

나는 선전 예술대원들의 공연을 보고 정평 인민들의 투쟁 모습을 넉넉히 알 수 있었습니다.

정평을 한 바퀴 돌아 보고 떠나는 나는 그 어느 곳에서나 모두 정평처럼 들끓고 있는 우리 나라 전야에 500만 톤의 황금 나락이 물결칠 앞날을 그리며 기수를 돌렸습니다.

(1), 1933년 왕청에서였다. 여기에는 혁명에서 부모를 잃은 50명 고아들이 김 일성 원수님의 따뜻한 사랑과 지도 밑에 아동단 생활을 하고 있었다. 이들은 아동단 생활을 통하여 믿음직한 어린 혁명 전사로 자라나고 있었다. 아동단 조직—이는 이들의 어머니 품이였으며 훌륭한 학교였다.

(2), 꽃 피는 봄이였다. 하루는 적 《통치》 구역에서 부모를 잃은 김 문섭이라는 소년이 이곳 아동단 분단에 편입되여 왔다. 그는 《통치》구역에서 갓 아동단에 입단한 소년이였다. 새 동무를 맞이한 분단 아이들은 진심으로 문섭이를 환영하였다.

(3). 적《통치》구역에서 정식 조직 생활을 해 보지 못한 문섭은 한 동안은 이곳 아동단 생활에 익숙되지 않아 이러저러하게 말썽이 많았다. 우선 그는 아침 조기회 때면 의례히 늦잠을 자군하였다. 이것부터 고쳐 주는 문제가 중요하였다. 이 임무를 반장인 오 춘삼이가 맡았다. 그는 문섭이와 함께 잠 자며 그를 도왔다.

(4)문섭의 버릇이 좀체로 떨어지지 않았다. 어느 날 아침 조기회 때였다. 춘삼이는 자기 반 아이들에게 그날 할 일들을 분공하면서 문섭이에게는 아침 조기회에 늦지 않고 나오는 것을 임무로 주었다. 그러면서 그는 조직의 위임은 어떤 일이 있어도 완수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조직의 위임을 위해서는 목숨도 서슴 없이 바친 공청원들의 이야기를 들려 주는 것이였다.

(5), 조직의 위임을 수행한다는 자각과 인식을 갖도록 교양하고 지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잘 알고 있는 춘삼은 항상 문섭에게 이것을 타 이르는 것이였다. 어느 날 문섭이는 유격대로 나간 리 분녹이라는 아주머니네 어린애를 봐 주라는 위임을 받았다. 그런데 낮쯤 돼서 그는 우는 애에게 딸기를 따다 준다고 아이를 마당에 놔 두고 뒤'산에 올랐다.

(6), 그런데 뜻하지 않은 일이 터졌다. 왜놈 《토벌대》놈들이 유격대가 출동한 틈을 타서 쳐 들어 왔던 것이다. 삼면을 포위하고 쳐 들어 온 왜놈들은 순식 간에 마을에 달려 들어서 닥치는 대로 사람을 죽이고 집들에 불을 질렀다. 뜰안에 앉아 있던 어린 애는 연기와 불'길에 쌓여 위험에 빠지게 되였다.

(7), 바로 이때였다. 어디선가 연기 속을 뚫고 달려 든 소년이 있었다. 그는 문섭이의 위임 정형을 알아 보려 왔던 춘삼이였다. 벌써 왜놈들이 근처로 몰려 들고 있었다. 총소리와 아우성 소리가 귀아프게 들려 왔다. 춘삼이는 얼른 어린 애를 안고 연기 속으로 살아졌다.

(8), 문섭이는 딸기를 따는 재미에 정신 없이 밀림 속을 헤치며 다녔다. 그는 더 많은 딸기를 따서 아이들에게 나누어 줄 생각으로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돌아쳤다. 이런 때 마을에서 총성이 터지며 검은 연기가 솟구쳐 올랐다. 그제야 그는 정신이 들었다.

(9), 문섭이는 딸기를 쥐여 뿌리며 불타는 부락을 향해 달려 내려 갔다. 그는 어린 아이를 구원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모든 위험도 무릅쓰고 곧바로 마을로 뛰여 들었다. 그가 어느 집 모서리를 돌아 섰을 때였다. 총창을 비껴 든 왜놈 한놈과 맞다들었다. 그놈이 뭐라 소리치며 문섭에게 덤벼 들었다.

(다음에 계속)

붉은 마음 한뜻으로 뭉쳐

영예의 《모범 분단》 칭호에 빛나는 평남도 순안군 구서 중학교단 제 9 분단에서

지난 해 10월 24일 이 분단에서는 《모범 분단》 칭호 쟁취 운동에 참가할 것을 결의해 나섰습니다.

그 때로부터 석달 남짓이 되는 동안에 이들은 결의한 내용을 훌륭히 실행하여 이 번에 영예롭게도 민청 중앙 위원회로부터 《모범 분단》 칭호를 받았습니다. 이들이 받은 영예로운 《모범 분단》이라는 이름속에는 이곳 53 명 분단 동무들의 붉고 아름다운 마음이 아로 새겨져 있습니다.

☆ 위원들이 제할 일을 알고 앞장서 나갔다.

분단 동무들은 모두 한 마음으로 《모범 분단》이 되기 위해 힘쓰겠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쉽게 되리라고는 누구도 생각지 않았습니다.

분단 동무들은 전국 천리마 작업반 선구자 대회에서 하신 김 일성 원수님의 말씀과 천리마 작업반 아저씨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 분단도 그렇게 될 수 없을가?》고 생각 하면서 부러워했습니다. 분단 동무들의 이 마음을 분단 위원회가 옳게 이끌고 나가야 했지요. 그러나 막상 달라 붙어 보니 위원들의 머리에는 일을 어떻게 해 나갔으면 좋을지 잘 떠 오르지 않았어요. 그것은 아직 위원들 자신이 분단이 해야 할 일들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몰랐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분단 지도원 선생님께서 민청 중앙 위원회 제 10 차 확대 전원 회의 결정 내용을 다시 잘 배웠습니다.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은 위원들의 책임이란 매우 무거운 것이라고 새삼스레 느꼈습니다.

단 위원장인 신 계화 동무의 도움을 받으면서 첫 분단 위원회를 가졌습니다.

여기서는 분단 동무들이 결의한 내용을 한 조항씩 내놓고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를 의논했지요.

그러면서 첫달에 할 일을 의논했습니다.

위원들은 모두 첫달에는 분단을 튼튼히 꾸리고 규률을 강화하는 한편 소년단원의 의무와 권리 대로 소년단 생활을 잘 하는데 힘을 돌리자고 했습니다.

위원들의 의논에 붙이니 좋은 생각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선생님이 세워 준 계획을 위원들에게 한 번 알려만

주고 분단 총회에 내 놓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분단 동무들의 좋은 생각을 모아 계획을 세울 수 없었지요.

그래 이번에는 분단 위원들이 많은 분단 동무들의 의견을 들어 모두다 우등 최우등이 되기 위해 서로 도우며 공부에 힘쓰자는 것을 더 넣어서 첫 달에 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계획이 잘 되여 나가자면 위원들 자신이 제 할 일을 잘 알고 모범을 보이는 것이 중요했지요. 그래서 위원들은 소년단원의 의무와 권리를 수첩에 적어 가지고 다니면서 하루에 세 번 이상씩 외웠습니다. 반실마다에도 써 붙이고 공부하기 전에 한 번씩 읽도록 도왔습니다. 위원들은 누구나 붉은 넥타이를 단정히 매고 소년단원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랬더니 《얘들아, 우리도 위원들처럼 날마다 넥타이를 잘 다려서 매고 다니자》하고 반장들은 반 동무들에게 말하는 것이였습니다. 이럴 때 위원들은 붉은 넥타이의 귀중한 뜻을 분단 동무들에게 알려 주고 구겨진 넥타이를 매고 다니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했습니다.

이들의 성격은 다르다. 그러나 마음은 하나다

위원들은 토요일마다 모여 앉아 지난 주간에 한 일을 알아 보고 잘못을 찾고 새로운 일을 맡아 해 나갔습니다.

4 반에 있는 박 복녀 동무의 산수 공부는 분단에서 제일 뒤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4 반 동무들은 제 공부에만 힘쓰고 도와 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인 김 현숙 동무는 4 반 동무들의 반 생활을 도우면서 복녀의 산수 공부도 도와 최우등의 성적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 학기 시험에서 4 반 동무들은 모두 최우등을 하여 복녀와 함께 기뻐했지요.

민청 중앙 위원회 제 10 차 확대 전원회의 결정 대로 위원들이 일을 하려고 마음 먹으니 할 일은 자꾸만 생각났습니다. 명랑하고 활기 있고 용기가 넘치는 분단으로 되게 하자고 결의했는데 분단에는 아직 시를 읊지 못하는 동무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시 랑송의 날》을 자주 가지고 반 별로 경쟁을 했습니다.

위원들이 늘 맨 먼저 나가 읊었습니다. 《참 잘 읊는구나!》하고 분단 동무들은 위원인 안 정숙 동무의 시 랑송을 들으며 놀랐습니다. 분단 동무들 앞에 나가 말하는 것조차 부끄러워한 정숙이였으니까요. 이래서 《난 목청이 나쁜데 어쩌니》하면서 근심하던 동무들까지 누구나 세 가지 이상의 시를 읊게 됐지요.

분단 사업은 재미 있게 되였습니다.

위원들은 일한 보람을 느끼며 날마다 더 힘을 냈습니다.

☆모두가 소년단원의 의무를 지켜

아직 분단 동무들 가운데는 모임 때 자기 생각을 말하지 않고 맡은 일을 어기는 동무들이 있었습니다.

분단 위원회에서는 《붉은 넥타이의 뜻대로 소년단 생활을 잘 하자》는 제목의 총회를 준비했습니다. 위원들은 반에 자주 내려 가서 소년단원의 의무 대로 소년단 생활을 주인답게 잘 하여 규률 있고 튼튼한 분단으로 만들겠다고 결의한 내용을 잘 실천하도록 반장들과 소년단원들을 도왔습니다.

분단 위원회는 반을 돕고 올라 온 위원들과 모여 앉아 의논하고 어느 반에서든지 한 동무래도 좋은 일을 한게 있으면 벽보와 속보로 그 반 사업을 칭찬했습니다.

분단 총회에서 맡은 일에 늘 뒤 떨어지던 7 반 동무들은 삼치'골 마을을 《모범 위생 부락》으로 만들기 위해 우물 덮개도 만들고, 매일 아침 마을'길을 깨끗이 쓸고 있었습니다. 분단 위원회는 이 사실을 《분단의 자랑》이란 책에 써 넣고 분단 동무들 앞에서 읽어 줬습니다.

위원들은 반을 도우면서 누구나 《만경대》, 《당을 따른 어린 투사들》을 읽게 하고 《읽은 책 이야기 모임》을 함께 가졌습니다. 그랬더니 소년단원들은 김 일성 원수님의 어린 시절과 아동단원들에 대한 책을 자꾸만 읽고 싶어 했습니다.

이 동안에 분단 동무들은 다섯 제목 이상의 회상기와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이리하여 혁명 전통 연구 발표 모임 날에는 누구나 느낀 점을 말할 수 있게 되였습니다. 이렇게 준비한 분단 총회에서는 소년단원들의 좋은 생각이 많이 나왔습니다. 반 모임과 분단 총회 때 한 번도 말해 본 일이 없는 림 만옥 동무는 《붉은 꽃봉오리》라는 수첩을 만들어 날마다 좋은 일을 한 것을 적어 넣자고 제의 했습니다. 분단 동무들은 만옥이의 생각이 좋다고 칭찬하고 이 수첩에 다른 동무들의 좋은 점도 찾아 내여 적어 넣고 본 받자고 결정했습니다.

정말 분단 동무들은 자기들의 힘으로 《모범 분단》의 영예를 지니기 위해 한 사람처럼 움직였습니다.

혁명 전통 연구반을 책임진 림 금식 동무는 당 력사 연구 크루쇼크와 분단 지도원 선생님의 도움으로 《한 아동단원이 걸어 온 길》을 모아 그림극을 크게 만들어 분단 동무들에게 돌려 보였습니다.

분단 위원회에서는 2 반 동무들의 제의로 인민반 2 학년 동생들의 책상을 곱게 닦아 주기 위해 가마 밑에 붙은 검은 재를 가져 오자고 의논했습니다.

1 반 반장인 백 광숙 동무는 《나야 반장이니까 동무들의 것만 모아 가져 가면 되겠지》하고 마음 먹었다가 아침에 붉은 넥타이를 매면서 항상 정직해야 된다는 소년단원의 의무를 생각하고 자기도 가져 왔습니다.

광숙이의 이 마음을 아무도 모르지만 그는 분단 위원회에 찾아 와 잘못 먹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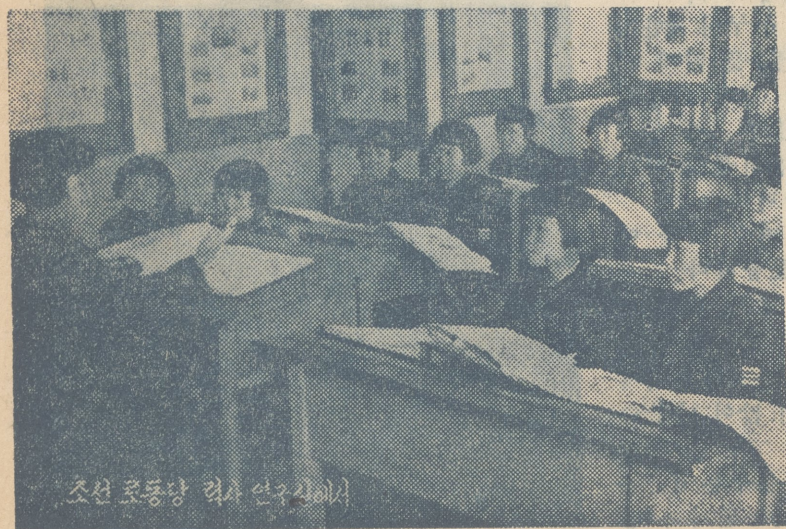
항상 함께 모여

던 마음을 이야기 했습니다.

이렇듯 이 분단 동무들의 가슴에는 《나는 소년단원이다》라는 자랑스러운 이름이 언제 어데서나 고동칩니다. 그러기에 분단은 모임에서 하기로 한 일과 맡은 일을 누구나 다 어김 없이 하고 분단 위원회에 알리는 튼튼하고 규률 있는 집단으로 되였습니다.

☆ 붉은 마음은 한 덩어리로!

단 위원회에서는 토요일마다 《붉은 통신함》을 엽니다. 이 통신함에는 누구나 아름다운 일을 한 소년단원을 보면 통신 원고를 써 넣습니다. 단 위원들은 이 통신함을 열 때마다 9 분단 동무들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많이 읽습니다.

교실에 만들어 놓은 쓰레기 통마저 소용 없게 된 깨끗한 교실에서 배우며 즐기고 있으니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가 많겠어요. 목욕탕 청소를 하다 선생님이 찾기에 선생님께 갔다 청소하던 일을 잊어 버리고 그냥 집에 갔던 전 덕순 동무가 5리'길을 도로 와서 청소를 마저 하였다는 이야기며, 누가 시키는 사람 없어도 항상 운동장을 깨끗이 청소하고 돌아 가는 분단 동무들!… 이야기는 끝 없습니다.

요지음 단 벽보에는 알곡 100만 톤 증산을 도와 짬짬이 모은 랭상 모판에 쓸 종이를 싣고 가서 바라이데 《즐거운 우리들의 하루 생활》을 보여 준 9 분단 동무들의 이야기가 실렸습니다.

지난 해 12월 27일 군에서 산수, 국어 경연회가 있었습니다. 《애 넌 공불해》 하면서 분단 동무들은 경연회에 나가는 동무들에게 공부할 시간을 내주기에 애썼습니다. 12월 27일 날 공부는 끝났으나 한 동무도 집으로 가지 않고 경연회에서 돌아 올 동무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산수에서 전 덕순 동무가 일등을 하고 국어에서 김 현숙 동무가 일등했다는 것을 안 분단 동무들은 두 동무를 얼싸 안고 어쩔줄 몰라했습니다. 군내 그 많은 학교 동무들 중에서 1 등의 영예를 지닌 이 분단 동무들의 기쁨은 하늘에라도 날아 오를 것만 같았습니다. 이날 이들은 어둡는 줄도 모르고 춤과 노래로 떠들석 했습니다. 분단 위원장 림 금식 동무가 《당은 우리를 행복에로 인도하네》란 시의 첫 련을 떼자 다 같이 일어나 합창으로 읊으면서 당과 김 일성 원수님의 품 속에서 나날이 늘어 가는 행복을 가슴 깊이 간직하고 새 학기에는 더욱 열심히 공부하여 모두 다 최우등의 성적을 쟁취할 결의를 다졌습니다.

지금 이들은 자기들의 붉은 마음 그대로인 모범 분단 기'발을 자랑스러히 날리며 천리마 작업반 아저씨들처럼 배우며 생활하면서 모두가 조선 로동당과 김 일성 원수님이 부르는 길로 우리 당의 어린 붉은 전사답게 힘차게 나가고 있습니다.

본사 기자 김 준규

조선 로동당 력사 연구실에서

리 수복 영웅

리 수복 영웅은 소년단 생활을 거쳐 민청원으로 자라났습니다. 원쑤를 증오하며 조국을 열렬히 사랑한 형님은 원쑤 미제를 반대하는 정의의 조국 해방 전쟁에서 19세의 젊은 가슴으로 적 화구를 막아 항일 빨찌산의 빛나는 혁명 전통을 이어 받은 영웅적 조선 인민 군대의 영예를 떨치였습니다.

형님은 비록 죽었으나 그 애국심과 영웅성은 우리의 가슴 속에 길이 살아 있을 것입니다.

☆ ☆

1), 형님이 출생한 순안군 금천리는 아름다웠으나 생활은 그처럼 아름답지 못하였다.

형님은 끼니를 굶어 가면서 15리'길을 걸어 소학교에 다니였고 집에 오면 아버지, 어머니를 도와 산에 가서 나무를 해야 했고 들에 가서 꼴을 베고 지주집 소를 먹여야 했다

2), 해방을 맞은 형님네 집 살림은 해마다 늘어만 갔다. 당의 품 속에서 형님은 행복하게 공부하였다.

형님은 공부에서는 물론 일에서도 남에게 지는 일이 없었다. 학급 반장이 된 형님은 어떤 일에서나 동무들에게 모범을 보였다.

한번은 학교 지을 벽돌 운반에서 남보다 곱절의 일을 해서 동무들로부터 《벽돌 장군》이라는 별명까지 받은 일도 있었다.

3), 형님은 항상 말보다 행동이 앞섰다. 단 한번의 지각도, 결석도 없었고 민청에서와 학교에서 주는 위임이라면 어떤 일이 있어도 꼭꼭 해 내군 했다.

겨울 방학 때 민청에서 성인 학교를 지도할 위임을 맡겼다. 열성이 부족한 삼돌 어머니를 맡은 형님은 일'손을 거들어 주면서까지 그의 학습을 도와 끝내 편지를 쓰고 신문까지 읽게끔 하였다.

4), 어느 해 가을 학교에서 모형 비행기 경기 대회가 있었다.

최우등을 위해서 뒤떨어진 과목을 추켜 세우는 데만 힘을 기우리다 보니 경기 대회 전날 밤에 부랴 부랴 만들어 낸 형님의 모형 비행기는 이어 땅에 곤두박히고 말았다.

그날 밤으로 형님은 물리에서 배운 지식을 익혀 가며 꼬박 밤을 새워 새로운 모형 비행기를 만들었다. 다음 날 형님이 만든 모형 비행기는 으뜸가게 날았다.

5), 이렇게 형님이 행복하게 공부하고 있을 때 미제와 리 승만 역도는 이 행복을 빼앗으려고 달려 들었다.

형님은 《모든 것을 전쟁 승리를 위하여》라는 김 일성 원수님의 부름을 받들고 제일 먼저 전선을 탄원해 나섰다. 사랑하는 고향과 행복한 조국 땅에 기여 든 미제 승냥이놈들을 한 놈도 살려 보내지 않으리라고 다짐하며 전선으로 달려 나갔다.

6), 군대에 입대한 형님은 전투마다에서 용감히 싸웠다. 1951년 8월 적들은 1,211고지를 점령하기 위하여 이리떼처럼 달려 들었다.

중대 민청 부위원장인 형님은 항일 빨찌산의 전통을 이어 받은 인민의 군대 답게 목숨 바쳐 조국을 지킬 것을 당과 최고 사령관 앞에 맹세하는 선동문을 써 돌리였다. 형님이 쓴 짧은 쪽지는 전우들의 가슴에 불씨를 안겨 주었다.

7), 어느날 형님은 새 전투를 앞두고 지휘부로부터 혀(포로)를 잡아 오라는 전투 명령을 받았다.

형님은 항상 상부의 명령을 법과 같이 여기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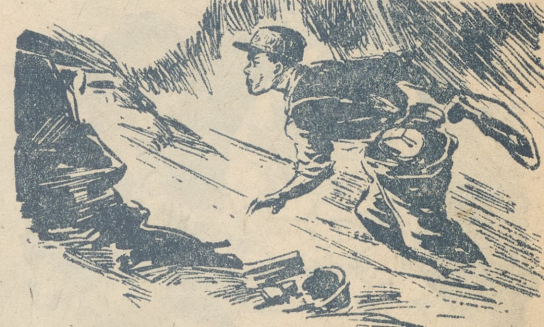
밤은 조명탄과 탐조등으로 대낮처럼 환해 얼씬할 수 없었다. 그러나 용감한 형님은 위험을 무릅 쓰고 지뢰망과 철조망을 뚫고 적진지 깊이까지 기여 들어가 미국놈을 잡아 오고야 말았다.

8), 적들은 1,211고지를 빼앗으려고 하루에도 수만발의 포탄을 쏘아 댔고 수십 번씩 기여 올라 왔다. 전투는 말할 수 없이 가렬하였다. 그러나 우리의 인민군 용사들은 조금도 굴하지 않고 오직 당과 인민을 위해 용감히 싸웠다.

형님은 적탄이 비'발치는 속에서도 자기의 몸을 돌보지 않고 부상 당한 전우들을 산 기슭까지 업어다가 붕대를 감아 주었고 응급 처치도 해 주었다.

9), 무명 고지 돌격을 앞두고 전투장에서는 공개 당 회의가 열리였다

우리는 《항일 빨찌산의 피'줄을 이어 받은 영예로운 조선 인민군입니다. 그리고 해방된 조선 청년입니다. 당과 조국 앞에 충성을 다할 때는 왔습니다. 생명과 희망도 귀중합니다. 그러나 생명보다 더 귀중한 것은 조국입니다. 조국이 없이는 래일도 희망도 없습니다.》

공개당 회의에서 토론한 리수복 형님은 돌격조 조직을 제의했다. 민청원 형님들은 이번 전투에서 용감히 싸워 당원이 될 것을 굳게 결의했다.

10), 형님의 제의로 조직된 돌격조는 적탄이 비'발치는 속을 뚫고 돌격해 들어 갔다. 입을 다물었던 화점은 또 불을 뿜고 있었다. 일분도 지체할 수 없는 위급한 순간이였다. 하나 밖에 없는 조국을 위해 둘도 없는 목숨을 바칠 때는 왔다고 결심한 형님은 펄떡 일어서서 화구를 향해 쏜살 같이 달렸다.

형님은 가슴으로 적화구를 막았다. 잠시 후 고지에는 승리의 기'발이 휘날리였다.

지금 각지 소년단원들은 우리 당 중앙 위원회 12월 확대 전원 회의 결정을 받들고 7 개년 계획의 첫 전투에 나선 아버지 어머니들을 도와 힘차게 일떠섰습니다.

얼마전 평안남도 룡강군 내 소년단원들은 군 련합 단체 대회를 열고 자기들의 결의를 다지였습니다.

그들은 우선 모두가 우리 당 중앙 위원회 12월 확대 전원 회의 결정 내용을 열심히 학습하고 《소년 선전 예술대》 활동을 높여 그를 널리 선전하며 자기들의 힘과 지혜를 바쳐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12월 확대 전원 회의 결정 실행을 힘껏 도와 나설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토끼를 많이 기르라는 당의 부름 받들고 금년에 2만 마리의 토끼를 길러 내며 (그 중에서 털 토끼는 5,700 마리 이상) 100만 톤의 알곡 증산에 나선 부모님들의 농사'일을 도우며, 피마주, 해바라기, 수세미 오이 등을 많이 심고 가꾸어 나라에 리익을 주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산 열매와 산채를 더 많이 따며 경제림을 만들며 과수나무를 심고 가꾸며 학교 마다에 포도원을 가꾸자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애림대》, 《록화 근위대》의 역할을 높여 산림을 애호하며 가로수와 꽃밭을 잘 가꾸며, 곡식과 나무에 해를 주는 새들을 잡아 없애고 익조를 보호하는 일에도 나설 것을 결의했습니다. 그 밖에도 나라와 인민의 재산을 아끼고 사랑하며 파지, 파고무, 파유리를 모으며 전기를 절약하며 학용품등을 절약하기 위해 힘쓸 것 등을 결의해 나섰습니다.

이는 7 개년 계획의 높은 고지를 향해 천리마를 탄 기세로 달리는 근로자 아저씨들의 투쟁을 도와 나라의 사회주의 건설과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더욱 빠르게 하는 애국적인 투쟁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러한 투쟁을 통해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더욱 익히고 새로운 지식을 얻으며, 로동을 사랑하는 정신을 키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회주의 조국 앞날의 쓸모있는 일'군으로 열렬한 애국자로 자기를 준비하는 데도 크게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에 민청 중앙 위원회에서는 우리 나라 각지의 소년단 단체들과 소년단원들의 이 애국적 활동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올해부터 《꼬마 7개년 계획》 활동을 조직 진행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럼 우리들은 어떤 일들을 어떻게 할 수 있을가요. 다음의 그림에서 알아 보기로 합시다.

《꼬마7개년 계획》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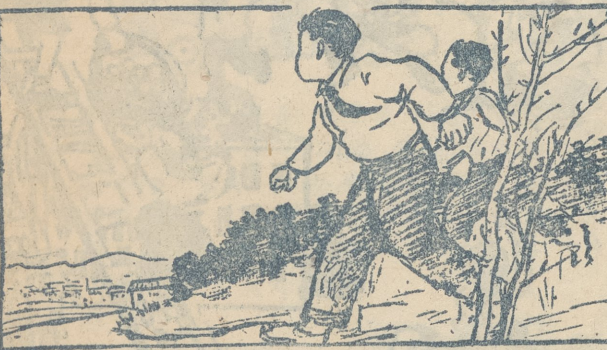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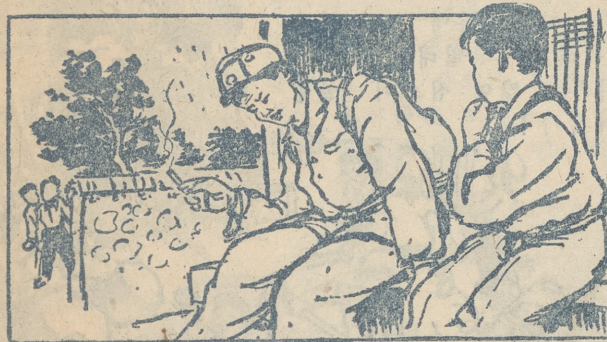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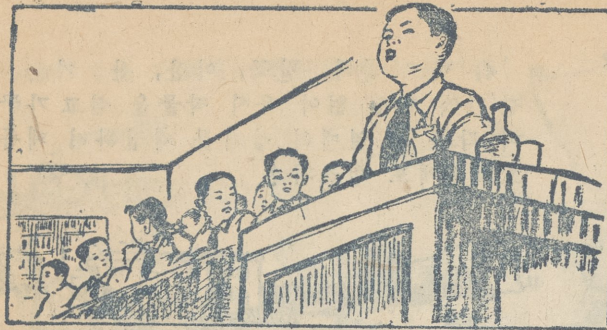
1, 《소년 선전 예술대》 활동을 더욱 높이자!

2, 학교와 가정에서 토끼를 잘 기르자! 특히 털 토끼를 대대적으로 기르며 학교에서 닭, 돼지, 양도 기르자! 가축을 잘 기르자면 사료가 많아야 하므로 학교에다 풀씨들을 모아다 사료 밭을 만들며 토끼 우리도 제때에 늘쿠며 꾸리자!

3) 농촌에서 새 땅을 일쿠고 나쁜 땅을 좋은 땅으로 만드는 일 거름 생산 풀베기 모내기 추수 탈곡 등 농사'일을 힘껏 도와 드리며 학교를 아름답게 꾸리며 쓸모 있는 지식과 기술을 배우며 재간 있는 솜씨를 키우기에 힘쓰자!

4, 학교 둘레, 밭둑, 야산, 산 기슭, 길'가에 빠짐 없이 유지 작물을 심고 가꾸며 각종 산 열매와 산채를 채집하며 폐품 모으기에도 힘쓰자!

5, 경제림을 만드는 일과 과실 나무를 심고 가꾸며 특히 학교마다에 포도원을 만들며 《록화 근위대》, 《애림대》 활동을 높여 봄, 가을 나무를 많이 심으며 산림을 보호하는데 나서자!

6, 나라와 인민의 재산을 귀중히 여기며 학교의 책상 걸상을 아끼고 사랑하며 학용품을 아껴 쓰자! 그리고 항상 몸을 깨끗이 하며 《위생근위대》 활동도 높이자!

경각성 높은 세 소년단원

개성 지구 개풍군 농업 기술 학교 단에서

(1) 1960년 11월 6일 개풍읍에서 군내 민청 소년단 련합 모임이 열렸다.

모임에서는 《향토 보위와 사회 질서를 더욱 강화하자》라는 문제가 토의되였다.

회의에서는 제대 군인으로 가장한 간첩을 잡은 김 원복, 리 갑룡, 김 봉욱이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되였다.

(2) 어느 일요일에 있은 일이다. 원복이는 아침 일찍부터 집 둘레를 청소하느라고 바삐 돌아 갔다.

이 때 멀리에서 제대 군인 차림을 한 사람이 좌우켠 산을 두리번 두리번 살펴 보면서 원복이네 집을 향하여 스적스적 걸어 오고 있었다. 그의 뒤에서는 갑룡이와 봉욱이가 장난을 하면서 따라 왔다.

(3) 원복이네 집 뜰안에 들어 온 그놈은 좀 쉬였다 가게 해달라고 하면서 마루턱에 걸터 앉았다. 그리고는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시작하더니 이 부근에 군대가 있는가, 무슨 부대인가, 얼마나 되는가 등등을 캐 묻기 시작했다.

항상 경각성 높은 원복이는 그놈이 간첩이라는 것을 대뜸 눈치채고 거짓 말을 꾸며서 대답하군 하였다. 그러면서 울밖에 있던 갑룡이와 봉욱에게 눈짓을 하였다.

(4) 눈짓을 알아마친 갑룡이와 봉욱이는 우정 《원복아 빨리 가자! 동무들이 기다릴텐데…》하고 재촉했다. 그러자 원복이는 《청소를 마자 하고 갈테니 먼저 가》 하고 다시 눈짓을 하였다.

《그럼 우리 먼저 갈게 꼭 와야 해 응!》 갑룡이와 봉욱이는 이런 말을 남기고 곧장 내무서로 달려 갔다.

(5) 한편 그놈도 눈치를 챘는지 역전에 만날 사람이 있는데 인젠 가야겠군 하면서 바삐 서둘었다. 원복이는 그놈을 노칠가봐 마음이 조마조마 해 났다.

그러나 그는 다시 마음을 진정하고 《어머니! 나도 놀러 갈래요 동무들이 기다릴 텐데…》하고 우정 엉석을 부리면서 그놈의 뒤를 따라 밖으로 나섰다.

(6) 원복이는 멀지감치에서 그놈의 뒤를 따랐다. 그런데 그놈은 역전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도중에서 아까시야 나무가 우거진 숲 속으로 슬쩍 몸을 피하였다.

숲은 그다지 크지 않았다. 때문에 원복이는 그놈의 뒤를 바싹 따를 수 없었다. 자칫하면 그놈을 노쳐 버릴 수 있는 아슬아슬한 순간이였다.

(7) 이 때 원복의 머리에는 어렵고 곤난한 일에 부닥칠수록 더욱 깊이 생각하고 침착하게 행동하였다는 항일 빨찌산 투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머리에 떠 올랐다.

원복이는 잠시 주위를 휘 둘러 보다가 아까시아 숲 옆에 있는 낮으막한 언덕으로 재빨리 기여 올라 갔다. 그 곳에서는 숲 속을 한 눈에 꿰뚫어 볼 수 있었다.

(8) 잠시 후에 내무원 아저씨들이 갑룡이와 봉욱이를 앞 세우고 달려 왔다.

원복이는 숲 속을 계속 감시하면서 내무원 아저씨들이 곧장 자기 한테로 오도록 손짓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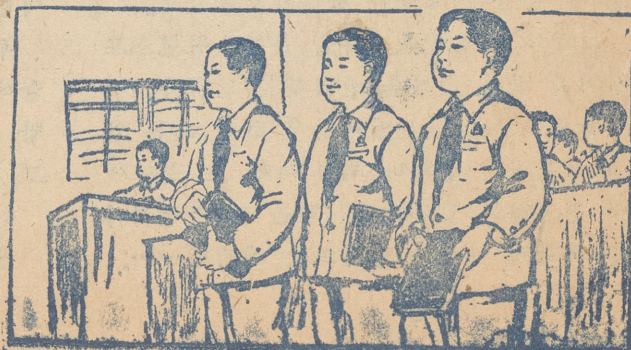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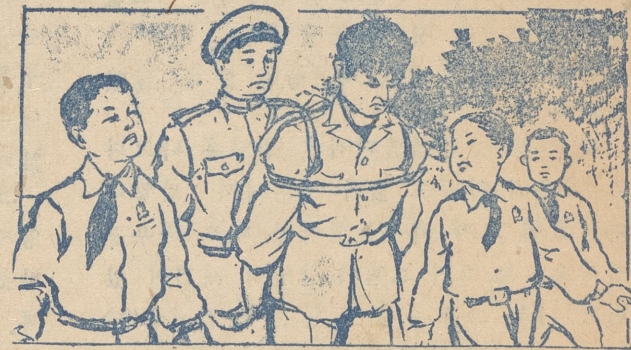
내무원 아저씨들과 두 동무가 원복이 한테까지 도착하는 사이에 그놈은 숲 속을 빠져 마을로 숨어 들고 있었다.

(9) 원복이는 내무원 아저씨들을 안내하여 급히 마을로 뛰어 갔다.

잠시 후 그놈은 경각성 높은 세 소년단원들과 용감한 내무원 아저씨들에게 체포되였다. 그놈은 제대 군인으로 가장하고 기여든 간첩이였다.

(10) 련합 모임에서는 향토 보위와 사회 질서 유지에서 모범을 보인 수 십명의 민청원과 소년단원들에게 표창이 있었다.

표창 받는 동무들의 맨 앞 줄엔 원복이 갑룡이 봉욱이가 나란이 서 있었다.

표창을 받은 세 소년단원의 앞 가슴에서는 붉은 넥타이가 더욱 자랑스럽게 펄럭거렸다.

소설

붉은 넥타이

글 김 룡 익
그림 백 대 진

우리 분단에는 박 종민이라는 애가 있습니다. 그 애는 나와 한 마을에서 살고 있는데 새 학년도에 동무들은 그를 분단 위원으로 선거하였습니다.

나는 그때 은근히 시새움이 없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종민은 나보다 더 나은게 하나도 없어 보이니까 말입니다. 글쎄 그가 최우등생이면 나도 최우등생이요. 또 그가 그림에 남달리 재간이 있다면 나는 그보다 못지 않는 축구 《선수》로 온 분단에 소문이 자자했으니깐요.

그런데도 애들은 나를 분단 위원으로 선거할 대신 종민을 선거한 것입니다.

글쎄 이게 될 말입니까? 하긴 그는 일상 생활에서 언제나 되바르고 또 분단에서 위임하는 일이라면 힘든 일 가릴세라 늘 선참에 나서는 애라고는 하지만…….

언젠가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분단에서는 방과 후 토끼 우리를 고친 일이 있었는데 그날 마련했던 널판자가 모자라 4호 토끼 우리만은 미처 다 고치지 못한 채 헤여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어떤 일이 생겼는지 아세요? 뜻하지 않은 찬 비가 내렸습니다. 이만 저만한 소낙비가 아니였지요.

나는 그때 물론 세상 모르고 잠에 취해 있었지요. 미처 고치지 못한 4호 토끼 우리 속에서 호졸군히 찬 비를 맞은 여섯 마리의 토끼들이 오돌오돌 떨고 있을 것도 모르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이튿날 아침 학교에는 이상한 수수께끼가 생겼습니다.

간 밤에 찬 비가 내려 여불 없이 토끼가 상했으리라고 일찍암치 학교에 달려 나온 우리들은 4호 토끼 우리 우에 비옷이 들씌워져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섯 마리의 토끼들은 어제 밤 아무런 일도 없었다는듯 호물 호물 풀을 뜯고 있었지요.

《아니 이게 어찌된 일이야?》

어제 밤 수직이였던 상급생 형님들도 무슨 영문인지 몰랐습니다. 형님이 비를 무릅쓰고 토끼 우리에 달려 나왔을 때에는 이미 4호 토끼 우리에 비옷이 들씌워진 후였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분단 동무들은 이 비옷의 임자를 찾고 있었는데 그것이 종민이의 비옷인 줄이야 누가 꿈에나 생각했겠습니까. 글쎄 비옷 안 한켠 구석에 《박 종민》이란 글자가 씌여 있지 않겠어요.

우리들은 선생님을 따라 우르루 교실로 들어 갔습니다. 마침 그때 종민은 어제 밤 비에 푹 젖어 쭈굴 쭈굴해진 옷을 바로 펴느라 씨근거리고 있었습니다.

《종민이! 이 비옷이 종민이겁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동무들의 시선은 일시에 종민이의 얼굴에 쏠렸습니다.

그러자 종민은 부끄러워 낯이 빨개지며 어쩔 바를 모릅니다.

《네. 제겁니다!》

《그래… 어제 밤 종민이가 토끼 우리에 비옷을 가져다 씌웠습니까, 참 장한 일입니다.》 선생님의 칭찬은 대단하였습니다. 동무들도 그를 여간 부럽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종민은 우쭐해질 대신 더욱 얼굴이 빨개지는 것이 아니겠어요!

(어! 이친구 정말 괜찮은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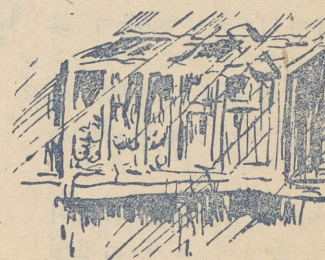
나는 그때 그가 여간만 돋보이질 않았습니다. 이때껏 허스름이 여겨 오던 바로 그 종민이가 말입니다.

하긴 나도 그날 밤 잠에서 깨여 났더면야 당장 학교에 달려 가 비옷이 아니라 의복까지라도 벗어 토끼 우리에 씌워 줘 동무들을 놀라게 했을 것만…… 일이 잘 안될 때라 나는 그때 잠에서 깨여나지 못한 것이 탈이였습니다.

나는 이처럼 분한 일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만 되였다면 종민이와 같이 벽보에 사진도 났을 것이니깐요.

그런데 종민은 분단 위원으로 선거된 후 나 보기에도 좀 우쭐해진 것만 같았습니다. 《넥타이 문제》에 대해서 말다툼이 벌어진 것만으로도 능히 알 수있으니깐요.

영화 구경을 하느라고 늦잠을 잔 나는 그 이튿날 아침 늦으막해서야 일어났습니다. 나는 어찌나 서둘었는지 그만 넥타이도 매지 못한채 학교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학교 정문에는 두 서너명의 상급생들이 지켜 서서 동무들의 옷 차림을 바로 잡아 주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보자 나는 흠칠 놀라며 운동장 두리에 솟은 키돋은 뽀뿌라 나무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한참 동안은 어찌했으면 좋을지 몰랐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지난 날 이따금 넥타이를 매고 다니지 않아 비판을 받아 오던 내가 오늘 또 넥타이를 안 매고 나왔으니까요.

단단히 꾸지람을 들을 것은 뻔한 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장 집에 달려 가 넥타이를 매고 올 시간도 없었습니다.

(어쩌나?)

나는 오도 가도 못하고 두루 궁리하다가 갑자기 무릎을 탁 쳤습니다.

《옳지! 뒤'문으로 들어 가자!》

나는 그리로 달려 갔습니다. 그리고는 제법 변소에서 나오는척 하고 괴춤을 추어 올리며 슬그머니 뒤'문으로 들어 섰습니다. 곧

바로 교실로 통해 있으니깐요.」

그런데, 이때 뜻 밖에도 나는 종민이와 마주치게 되였습니다.

종민은 한 동안 나를 빤히 쳐다 보다가 나무라듯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넌 왜 뒤'문으로 빠져 들어 왔니? 옳지. 넌 또 넥타이를 매지 않았구나…》

《응 좀 바빠서 그래 뭐 하루쯤이야 메라니?》

나는 종민이가 눈 감아 줄 것으로만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되려 여니 날과 달리 성난 사람처럼 얼굴을 붉히며 나를 뚫어지게 쏘아 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넌 넌 정말 소년단원이란 자각이 없어!》

제법 타이르듯 그가 어쩌나 쌀쌀히 대드는지 나는 그만 어안이 벙벙해졌습니다.

(글쎄 자기가 뭐라고… 뭐 분단 위원이 되였다고? 흥) 나는 은근히 화가 치밀었습니다.

《아니 얘가 왜 이래?》

나는 이렇게 한 마디로 쏘아 줬습니다.

그러자 종민은 어이 없는듯 한 동안 말이 없다가 나를 또 쳐다 보는 것입니다.

《글쎄 생각해 봐 소년단원이 넥타이를 매지 않는다면 그게 뭐 소년단원이냐, 더구나 요새 새 소년단 규정을 배우고 있지 않니, 우린 말이야 참된 소년단원이라는

자랑으로 언제나 붉은 넥타이를 매고 다녀야 해! 그런데 넌…》

《흥 별 친구 다 봤네!》

이때 만약 상학 예비 종이 울리지 않았다면 나와 종민이 사이에는 좀 언짢은 말이 오고 갔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던 이런 일이 있은 다음 날부터 나는 종민이를 그리 좋게 생각질 않았습니다. 되려 이런 교부장한 생각을 갖고 있었으니까요.

(어디 두고 보자! 넌 얼마나 넥타이를 소중히 매고 다니는가?)

사실 나는 종민이가 여느 애들과 달리 자기의 붉은 넥타이를 귀중히 여기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넥타이는 언제나 깨끗이 다리미'발이 서 있었고 또 늘상 몸에서 떠날 줄 몰랐습니다.

언젠가는 갑자기 비가 와 종민은 길'가에서 그만 비를 맞게 되였는데 그가 어찌나 잘 간수하였는지 옷이 흠박 젖었는데도 넥타이만은 물'기 한 방울도 묻지 않아 동무들을 놀라게 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때 난 종민이가 참 이상히 여겨졌습니다. 글쎄 넥타이에 비를 좀 맞히면 맞혔지 그처럼 입은 옷들마저 죄다 비에 맞힐 필요가 어디 있는가구. 그 애는 웃옷으로 넥타이를 싸고 또 쌌던 것입니다.

(모를 일이야. 참 이상해!)

어느 날 나는 그와 같이 집으로 가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근데 종민아 넌 참 이상해! 난 알다가도 모르겠어?》

《뭐가 말이야?》

《글쎄 넥타이에 비를 좀 맞히면 맞혔지 왜 웃 옷으로 싸구 또 싸는가 말이야—》

그러자 종민은 싱긋 웃으며 나를 쳐다 보더니

《이건 말이야 참 귀중해!》

하고 자기 손가락으로 넥타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누가 그걸 몰라 그러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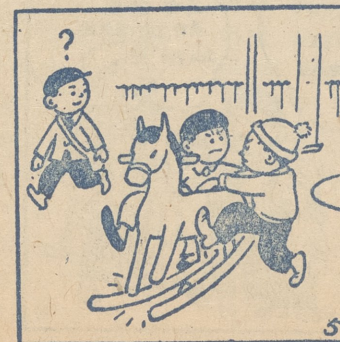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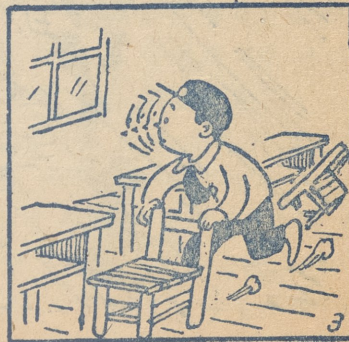
그것 쯤은 나도 알고 있었습니다. 선생님도 늘상 붉은 넥타이를 소중히 여기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럼 왜 묻니?》

종민은 이상스레 나를 쳐다 보는 것입니다.

《그래두 넌 아무리 봐도 이상해.》

《참 너두 뭐이 이상해? 이 붉은 넥타이는 소년단원의 기본 표식이 아니냐. 우리가 이담 커서 민청원이 되구 또 그 다음은 로동당원이 되겠다는 소년단원의 가장 큰 희망을 표시한거가 아니냐. 우리 누난 말이지 민청원인데 늘상 민청 맹증을 가슴 속에 품고 다녀, 우리 아버지 당증처럼 말이야.

그런데 우리껜 이 넥타이가 영예스런 소년단원이라는 표식이거든… 어때? 그래두 비에 젖힌단 말인가?》

나는 이때 힐끔 종민을 쳐다 보았는데 얼핏 보면 어딘가 허술그레한 애 같으면서도 아주 그럴듯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놀라움에서였습니다.

《그렇구 말구 난 절대루 비에 젖힐 수 없어,

너 알지 이 넥타이는 말이야 그전에 아동단원들이 매고 다니던 바로 그 넥타이야, 그들은 모진 추위와 주림 속에서도 언제나 이붉은 넥타이를 자랑스럽게 매고 다녔다고 하지 않니. 그러면 빨찌산 아저씨들 처럼 용기도 생기구 대담성도 생겨서 그 못된 일본놈과 싸워이긴거야 그런데도 넌 이 넥타이를 소홀히 할테냐?》

《…………》

종민은 열이 올라서 말했지만 나는 그저 잠잫고 듣고만 있었습니다. 지금 내 처지로 봐서는 그에게 대'구할 아무런 근거도 없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아마 체육 시간이 방금 끝난 뒤였습니다.

이날 나는 철봉에서 전 분단 동무들 특히는 종민이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 주고 싶었습니다.

하긴 그때 선생님이 계셨다면 나는 그런 엉뚱한 재주 넘기를 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선생님이 방금 교실에 들어간 뒤라 나는 제법 으시대며 철봉대에 매여 달렸습니다. 동무들이 실수하겠다고 하는 것도 못들은 체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글쎄 이럴 줄이야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나는 철봉대에 올라 오른 다리를 걸고 슬쩍 한 바퀴 휙—돌다가 그만 허궁 땅바닥에 나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철봉대 옆에 서 있던 종민을 깔아 뭉개며 떨어 졌으니 말이지 그렇지 않았더면 큰 일 날번 했습니다.

그바람에 종민은 다리를 좀 상하고 나는 나무 모서리를 징쪼아 호된 방망이에 얻어 맞은듯 정신이 아찔해 왔습니다. 분단 동무들은 나의 머리에서 피가 흘려 내린다고 야단 법석입니다. 그들은 손 수건을 꺼내 싸매려 했지만 짧아서 동여 매지질 않았고 피는 계속 흘렀습니다. 그런데 이때 종민이가 아 글쎄 자기의 붉은 넥타이를 닁큼 풀어 내 머리에 감아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비에 맞힐세라 웃 옷으로 싸고 또 싸던 바로 그 넥타이를 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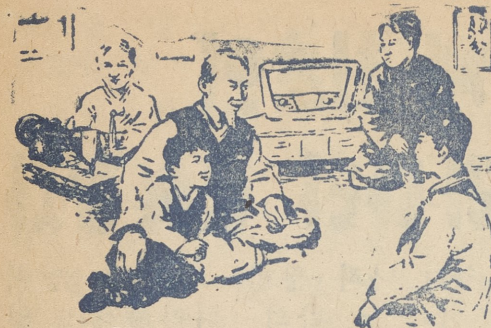
나는 갑자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종민의 그 참되고 아름다운 마음씨에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소년단원이라는 참된 마음이 아니였더라면 어찌 생각이나 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가 분단 위원으로도 선거될 수 있었고 또 동무들이 그를 무척 따르는 것이라고 나는 새삼스레 깨닫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 바로 그것이 중요해—뭐라드라, 그렇지 소년단원의 영예— 그 참다운 마음 말이야, 그런데 난 이때껏 그걸 잘 개닫지 못하고 있었거든 에이참…》

나는 진료소로 가면서 종민을 두고 이렇게 자신을 뉘우쳤습니다.

할아버지의 이야기

평양시 대성구역 미암 농업 협동 조합 리 성근 아저씨네 가정에서

학교에서 돌아 온 병룡이는 책상에 놓인 꽃 무늬 보자기에 싸인 큰 통을 의아스럽게 만져 보고 있었습니다. 《이건 아버지가 사왔어, 이속엔 소릴 내는 〈아바이〉가 있대》 올해 여섯 살 난 동생 병일이의 말이였습니다.

조합에서 돌아 오신 아버지는 싱글싱글 웃으시며 우'방에서 전기'줄을 잇고 있었습니다. 소리 내는 《아바이》란 말에 병룡이는 더욱 풀어 보고 싶었습니다.

벙글벙글 웃으시던 아버지는 온 집안 식구들이 앉은 한 가운데서 보자기를 펼쳐 놓고 통을 뜯었습니다.

《야! 라지오.》 병룡이는 자기도 모르게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스위치를 넣자 라지오에서는 때마침 《풍년가》가 울려 나왔습니다. 병일이는 너무도 좋아서 온 방안을 돌아 가며 손벽을 쳤습니다.

감개 무량하신 듯 라지오를 바라보고 계시던 할아버지는 그 무슨 생각이 나신듯 이렇게 입을 여시는 것이였습니다. 《라지오를 보니 생각이 나는구나. 그게 아마 네 아버지가 아홉살 때 일이지…》 할아버지는 담배에 성냥을 그어 대고는 말씀을 이으시는 것이였습니다.

《참 좋은 세상이니라. 우리가 언제 이렇게 살아 봤니. 너희 아버지가 어렸을 때는 땅 한 뙈기도 없어 농사도 못 짓고 품팔이로 세월을 보냈구나. 그러다가 김 덕원이란 지주놈의 땅을 부치게 됐단다. 너희 아버지가 일곱살 때지, 땅을 얻어 부친지 두 해째 되는 동지'날이였구나. 네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달구지에다 지주놈에게 바칠 소작료와 닭을 싣고 지주네 집을 찾아 갔구나. 그때 지주네 집 사랑방에서 저런 라지오 소리가 들리더란 말이다. 그런데 네 아버지는 그 소리가 신기해서 어느 새 소고삐를 놓고 그놈의 사랑방으로 가 보질 않았겠니. 그때 아마 신기해 좀 만져 보려고 했던 모양이지. 그런데 옆에 섰던 일곱 살 짜리 지주네 집 딸년이 달려 오더니 《이 머저리 새끼를 봐라》하며 네 아버지를 밀어 치질 않았겠니 그 바람에 네 아버지는 사랑방 퇴'마루에서 나 딩굴었구나 그래 그만 토방'돌에 닿아 머리가 깨지질 않았겠니. 그때 생각을 하면 지금도 잊혀지질 않는구나, 이우'집에서 된장을 얻어 부치고 달구지에 앉아 오면서 네 아버지가 울던 일이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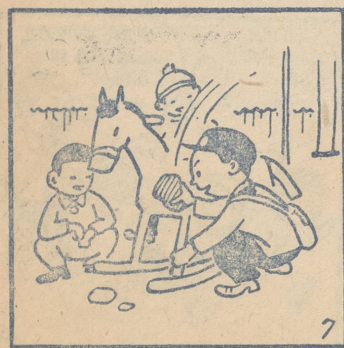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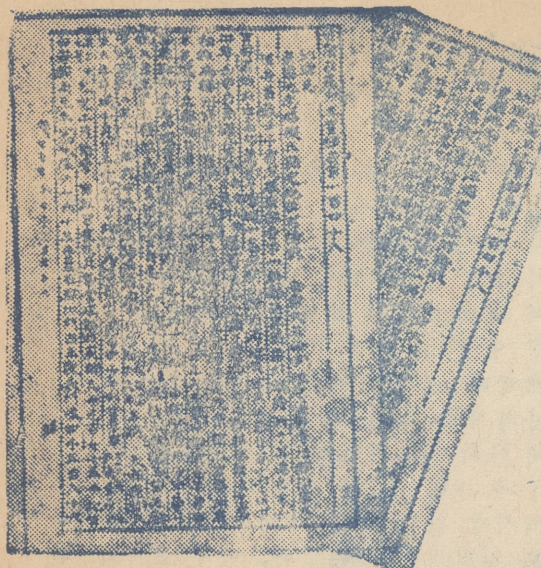
병룡이는 눈 깜박 하잖고 할아버지의 입만 지켜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입을 여시였습니다.

《참 우리 당과 김 일성 원수님이 얼마나 고마우냐, 그러던 우리가 해방 된 두해 만에 소 사구 집 짓구… 조합이 생기자 재봉침도 마련하구, 작년에는 수상님이 가르치신 청산리 방볍대로 농사를 잘 지어 대 풍년을 만나 이젠 우리 살림이 옛날 《천석군》 부럽지 않게 됐구나.

올해 우리는 알곡 62 가마니에 3 천 2백원의 돈을 탔으니 이걸 어더다 다 쓰겠니, 우리가 다 이렇게 잘 살게 된 것도 조선 로동당과 김 일성 원수님의 덕분이란다. 해마다 뜨락또르와 자동차가 힘든 농사'일을 다해 주니 일하기가 얼마나 좋으냐. 수상님의 말씀을 그대로 꼭 지켜 올해에 우리 나라에서 100 만 톤을 더 생산하면 그 때에는 정말 세상 부러운 것 없이 더 잘 살게 되지 않겠니, 그러기 우리는 지금 100만 톤 증산을 위해 그처럼 떨쳐 나섰단다. 너도 공부 잘 해서 이 은혜에 보답해야한다. 알겠니!》

어느듯 어두워진 방안에는 전등'불이 휘황해졌고 밖에서는 조합벌에 퇴비 나르는 뜨락또르와 자동차 엔징 소리가 련이어 들려 왔습 니다.

(본사 기자)

세계 최초의 우리 나라 금속 활자

글 윤 세 평

과학 문화를 발전시킴에 있어서 인쇄 기술의 발달이 얼마나 큰 역할을 노는 가는 많은 설명이 필요치 않습니다.

인쇄 기술이 발명되기 전에는 책들을 종이에다 하나하나 베껴 써서 만들지 않으면 안되였습니다.

따라서 옛날 사람들은 오늘과 같이 많은 부수의 책을 만들어 낼 수도 없었으며 신문과 잡지 같은 것은 생각조차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학문과 지식을 널리 보급시키고 책을 보존하기 위한 사람들의 노력은 마침내 인쇄술을 발명해 내게 되였습니다. 그리하여 인쇄술이 시작된 것은 나무 판자에다 글'자를 새겨서 종이에다 찍는 목판 인쇄술이였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이 목판 인쇄술에 있어서도 남달리 일찍 발달하여 고려 시기에는 수 많은 책들이 출판되였습니다.

물론 목판으로 책을 출판한 것은 우리 나라 뿐만 아니라 당시 중국이나 그 밖의 나라들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목판 인쇄술에 있어서도 우리 선조들은 남달리 뛰여 난 기술을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경상 남도 합천 해인사 절'간에 보관되여 있는 8만 대장경(책의 이름)의 목판은 그 큰 규모에 있어서나 판각이 정밀하고 교묘하기로서 세계에 자랑할 보물로 되고 있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목판 인쇄 기술을 발전시키면서 다른 한편으로 활자 인쇄 기술을 연구해 냈습니다. 나무 판자에다 글'자를 새기는 목판 인쇄술은 그것이 고정되여 아무래도 불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선조들은 그처럼 고정된 목판 보다도 글'자를 한자 한자 따로 떼여 만들어서 마음대로 이동시킬 수 있는 활자를 발명하여 냈습니다.

그리하여 구리를 녹여서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를 만든 것은 지금으로부터 7백 여 년 전 고려 시기의 우리 선조들이였습니다.

고려 시기의 저명한 작가의 한 사람인 리 규보 선생은 그가 쓴 글에서 1234년에 동 활자를 만들어 최 윤의가 편찬한 책 50권을 인쇄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234년은 벌써 금속 활자를 만들어 사용한 해인만큼 그것을 발명하기는 그보다 훨씬 앞섰을 것이라고 미루어 집니다.

서양에서는 지금까지 1450년에 처음으로 활자를 발명하였다고 전하여져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에서는 그 보다도 2 백 여 년 전에 벌써 금속 활자로 책을 출판하였으니 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이렇게 세계에서 금속 활자를 처음 발명한 것도 우리 조선 사람들입니다.

그후 금속 활자를 사용하는 인쇄술은 더욱 발전하여 리조 시기에 들어 와서는 활자를 만드는 《주자소》를 두고 활자를 계속 개량시켰습니다. 그리고 동 활자 뿐만 아니라 연으로도 활자를 만들게 되였습니다.

우리 나라의 목판 인쇄술이나 활자 인쇄술이 얼마나 훌륭하였는가는 지금도 전해지고 있는 그 당시의 책들이 그대로 말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 덧붙여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목판이나 활자로 인쇄한 그 많은 책들이 글'자 한자 틀리지 않고 또 빠진 글'자도 없이 정확하였다는 그 점입니다.

예로부터 우리 조선 인민은 이처럼 과학 문화를 사랑하였고 기술과 발명에 뛰여 난 재능을 가지고 인류의 과학 문화 발전에 크게 이바지 하였습니다.

우리 인민의 재능과 지혜는 우리 로동당 시대에 와서 더욱 활짝 꽃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인민은 과학, 기술, 문화, 예술, 이 모든 부문에서 자기의 재능과 지혜를 마음껏 발휘하여 우리 나라를 더욱 부강하고 발전한 나라로 만들기 위해 온갖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우리 선조들의 이러한 우수한 모범을 본 받아 사회주의 건설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과학자로 기술자로 조국을 더욱 빛내일 열렬한 애국자로 씩씩한 조국 앞날의 건설자로 되여야 할 것입니다.

동요

인민 군대 아저씨

붉은 별 반짝반짝 머리 우에 빛내며
우리 분단 자주 찾는 인민 군대 아저씨
미국놈을 쳐부시던 통쾌한 이야기
재미 있게 재미 있게 이야기해요.

김 일성 원수님 항일 유격대의
빛나는 전통 이은 자랑스런 인민 군대
미제 양키 무찌르던 그 마음 그대로
오늘도 조국 초소 튼튼히 지킨대요.

우리의 포근한 밤'잠을 지켜
가슴에 번쩍번쩍 훈장을 달고
초소에 서 있는 인민 군대 아저씨들께
우리는 손 들어 인사를 드려요.

우리들이 마음껏 공부할 때에
훈련으로 땀흘리는 인민 군대 아저씨들에게
굳게굳게 나는요 맹세 다져요
우리의 마음, 붉은 넥타이
최우등의 성적으로 빛내일 것을

평북 삭주군 수풍 중학교
3 학년 강 택근

나도 꼬마 《예술가》가 되였다

전용아! 너희 집에서 지금 귀국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나는 기쁨을 참지 못하여 이 편지를 쓴다.

전용아 내가 너와 헤여져 조국의 품안으로 온지도 벌써 만 1년이 지났구나. 이제 네가 나를 만나면 놀랄거야. 이 편지만 받아보고도 너는 《허 옥숙이가 벌써 이렇게 우리 글로 편지를 쓰게되였구나》하고 놀라겠지. 그러나 달라진건 그것 뿐이 아니란다. 내가 공부하고 있는 함남 신포 2 중학교 동무들은 모두가 노래 잘 부르고.춤 잘 추며 악기를 다룰 줄 아는 《예술가》들이란다.

그 속에서 나도 벌써 훌륭한 《꼬마 예술가》가 되였어. 너는 항상 김 일성 원수님을 한 번 뵈였으면 원이 없겠다고 하였지. 그런데 글쎄 나는 지난 8.15 해방 15 주년 전국 예술 축전 때 민주수도 평양에 가서 수상님 앞에서 공연까지 했단다. 수상님은 인자하신 얼굴에 웃음을 띄우시고 우리에게 박수를 보내 주시였단다. 그때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막 가슴이 뛰누나!

전용아 우리가 일본 오사까에서 살 때 우리 집 마당에 포장을 쳐 놓고 무대에서 음악 공연을 한다고 하면서 놀던 일이 생각나지?

음악에 취미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남의 나라에서 천대 받던 그때는 배울 수가 없었지. 항상 예술가가 되겠다고 하던 너에게 조국에 돌아 와 짧은 1년 간에 훌륭한 《꼬마 예술가》가 된 내 이야기를 해주마.

학교에 처음 입학한 나는 동무들이 낯 선 데다 말도 잘 모르고 해서 처음엔 서먹서먹 했단다.

그런데 내가 공부하기 시작한지 사흘만인 수요일이였단다. 이날은 우리 학교 연예 써클의 날이였어.

동무들은 가야금을 배우려 간다, 피리를 배우려 간다, 연극을 련습하려 간다고 모두 떨쳐 나서지 않겠니.

나는 혼자 속으로 《나도 언제면 저렇게 악기를 타며 명랑하게 지낼 수 있을가?》고 생각했단다.

그런데 분단 위원들과 함께 민족 기악 써클원인 리 경선, 최 미자 동무들이 달려 오더니 내 손을 잡아 끌지 않겠니.

나는 처음 보는 가야금을 어떻게 배우겠느냐고 하면서 망서렸더니 그 전에는 무대에 출연하는

써클원 동무들만이 악기를 다루어 왔는데 지금은 서로 배워 주며 배우고 해서 악기를 누구나 다 다루게 됐다고 하면서 배우면 못할게 없다고 하더구나. 나도 힘을 얻어 그들을 따라가 가야금을 배우기 시작했단다. 경선이와 미자는 나에게 멋 있는 가야금을 안겨 주면서 《이 가야금은 공화국 창건 10 주년 기념 전국 예술축전에 출연했을 때 수상님이 우리의 공연을 보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거란다. 수상님은 이 선물을 주시면서 여기에 출연한 동무들 뿐만 아니라 학교 전체 동무들 누구나 다 악기를 다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고 하잖겠니. 그때 수상님의 말씀을 받들고 학교에 돌아 온 연예 써클원들은 수상님이 주신 가야금을 가지고 각 분단에 내려 가 한 사람이 5 명씩 책임지고 배워 주기 시작했다는거야.

그래서 지금은 악기 못타는 동무가 없으리만큼 되었단다. 지금 학교에서는 수상님이 선물로 주신 악기와 《꼬마 5 개년 계획》활동에서 얻어진 돈으로 마련해 놓은 200 여개의 악기가 있단다. 연예 써클의 날로 정한 매주 수요일이 돌아 오면 학교는 상연 준비를 하는 극장처럼 춤과 노래 그리고 기악 써클원들이 타는 악기 소리로 흥성해지군 한단다.

학교에서는 가끔 분단 연예 경연 대회가 벌어진단다. 내가 처음 분단 경연에 나간 것은 지난해 6.6 절이였어. 그때 우리 분단 동무들은 집에까지 찾아 와서

나에게 가야금 타는 법을 가르쳐 주었단다.

이처럼 동무들의 친절한 도움을 받으면서 동무들과도 더욱 빨리 친해지게 되였어. 그래 모를 것이 있으면 꺼리낌 없이 묻기도 하면서 공부를 더욱 열심히 하게 되였단다.

분단별 써클 경연 대회에는 우리 분단 전체 동무들이 출연했단다. 절반 이상의 동무들이 민족 기악 연주에 출연하고 무용, 스케치, 합창, 시 랑송 등 다양한 프로를 가지고 출연했어. 나는 가야금 병창에 출연하여 《혁명 가요 편곡》, 《풍년 북을 높이 울려라》를 연주했단다.

연주를 마치자 동무들이 우루루 나에게로 달려 오더니 저마다 축하한다고 손을 내밀지 않겠니. 나는 막 눈'시울이 뜨거워 지더라.

이날 3 분단 동무들은 동무들을 잘 돕는 자기 분단의 모범 소년단원인 김 수남 동무에 대한 이야기를 자기들끼리 《우리 분단의 자랑》이라는 제목으로 연극을 만들어 가지고 나와 출연했단다. 이날 경연 대회는 참말 멋이 있고 즐거웠어. 이 경연 대회에서 우수한 프로를 골라 우리는 《소년 선전 예술대》를 조직해 가지고 신포 수산 사업소 아버지 어머니들을 찾아 가 위안 공연도 하고 8.15 해방 15 주년 경축 예술 축전에도 출연했단다.

지금 우리는 지난 해보다 100만 톤의 알곡을 더 증산하기 위해 일떠 선 농촌의 아버지 어머니들과 80만 톤의 물'고기를 잡기 위해 일떠 선 수산 사업소 아저씨들을 위해 연극, 스케치, 무용, 기악 합주 등을 준비해 가지고 나가 공연하고 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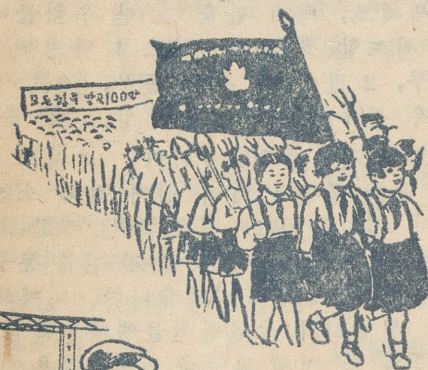
전옹아! 아무리 쓰고 써도 당과 조국의 품에서 즐겁고 행복한 나의 생활을 여기에다 다 적을 수 없구나.

네가 조국으로 돌아 오는 날 만나 이야기를 마저 하기로 하자.

나는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겠다. 너와 같이 손을 잡고 마음껏 노래하고 춤추며 즐겁게 공부할 그 날을 생각하며.

함남 신포 2 중 학교 단
제 9 분단 허 옥숙 씀

그들은 분단 계획을 이렇게 세웠다

글 라 재국

분단 위원회는 무엇보다 계획을 잘 세워야 합니다.

계획이 없이 일한다는 것은 넓은 바다 한 복판에서 라침판 없이 떠 다니는 배와 같습니다.

그러니 일이 잘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분단 위원회가 어떻게 계획을 세우며 세워진 계획을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를 지난 2월 26일 영예로운 《모범분단》 칭호를 수여받은 평양시 미림 중학교 단 4 분단 동무들의 사업 경험을 통해 보기로 합시다. 이 분단에서는 언제나 계획을 세울 때에는 분단 위원들과 반장들까지 한자리에 모여 앉아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알아 보며 의논합니다.

첫째로, 요새 당에서 내세운 과업은 무엇인가? 그것을 집행하기 위해서 민청에서는 무엇을 하자고 했는가, 그달의 단 위원회 계획은 어떠하며 단 위원회가 분단 앞에 준 과업이 무엇이고 그를 어떻게 해 낼 것인가!

둘째로, 소년단원들이 무엇을 요구하며 어떤 일을 하고 싶어 하는가,

세째로, 그 달에 있는 명절, 기념 일들을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맞을 것인가,

네째로, 지난 달 사업 계획을 잘 집행했는가 못했는가, 거기서 얻어진 경험을 어떻게 살리고 부족점은 어떻게 고칠 것인가,

다섯째로, 소년단원들의 필단과 조직 생활에 대하여 제기할 문제들이 어떤 것인가 등을 먼저 알아 봅니다.

이리하여 분단 위원회가 그달에 반드시 힘을 들여 할 일이 어떤 것인가를 결정하고 그를 어떤 방법으로 해 낼 것인가를 의논했습니다.

다음으로는 그를 위해 분단 위원회에서는 언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의논하며 분단 총회에서는 어떤 문제를 의논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정했지요. 례를 들면 혁명 전통 학습은 무엇을 어떻게 하며 《연구 발표 모임》, 《감상 모임》, 《상봉 모임》, 《독서 및 독보》는 어떤 내용으로 하며 군중 문화 체육 활동과 분단 벽보 발간, 그리고 소년단원들의 재간을 키우기 위한 크루쇼크 활동과 그 내용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의논하고 계획에 넣었습니다.

그럼 이곳 분단 위원회의 방학간 계획 내용을 살펴보기로 합시다.

첫째로, 분단 총회에서는 방학 동안에는 소년단원들이 주로 부락 반실과 집에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분단 앞에 나선 과업을 잘 해 내자면 소년단원들이 소년단 조직에서 주는 위임을 잘 집행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였지요.

때문에 분단 위원회는 소년단원들이 조직의 위임에 충실하도록 하는데 큰 힘을 돌릴 것을 결정하고 《공청원 리 순회 언니처럼 조직에서 맡겨진 일에 충실하자!》는 제목으로 1월 10일에 총회를 가질 것을 결정했습니다. 총회를 하기 전에 공청원 리 순회 언니에 대한 이야기를 소년단원들에게 알려 주는 일을 분단 위원 리 광순 동무에게 분공했습니다. 그리고 매개 반에서 소년단원들이 지난 시기 자기가 해 온 일을 총화하면서 느낀 점을 토론하도록 반장들에게 분공하고 총회 후 발표할 연예 써―클 준비를 전 순애 동무에게 책임지웠습니다.

둘째로, 분단 위원회에서 의논할 제목과 문제를 정했습니다. 첫 번째 위원회에서는 2 반 동무들이 1월 10일 분단 총회에서 분공 받은 과업을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가를 반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약한 점을 도와 주기로 했습니다. 두번째 위원회에서는 100만 톤의 알곡 증산에 떨쳐 나선 아버지, 어머니, 형님, 누나들의 일'손을 돕는 일과 아버지 어머니들을 고무하는 《소년 선전 예술대》의 활동에 대하여 전 순애 동무로부터 듣고 전체 소년단원들이 이에 더욱 열성적으로 참가하도록 할 것을 계획했습니다.

세번째 위원회에서는 3 반 동무들이 반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반장 안 성실 동무로부터 듣고 좋은 경험을 다른 반에 넘겨 주는 일을 할 것을 계획했습니다.

세째로, 매개 반을 분단 위원들이 맡아 지도할 것을 의논하고 1 반에 안 금주 동무, 2 반에 리 광순 동무, 3 반에 송 명옥 동무, 4 반에 김 정실, 리 종춘 동무로 각각 분공했습니다. 그리고 100만 톤 알곡 증산을 돕기 위해 전체 소년단원들이 파지를 모아 협동 조합 랭상 모판용 종이로 보내도록 할 것을 정 길춘 동무에게 분공하고 계획에 넣었습니다. 네째로, 분단 위원회가 소년단원들에게 혁명 전통 교양과 당 정책 교양을 어떤 내용으로 하며 체육, 노래, 춤, 유희등을 어떤 것으로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를 의논 하였습니다

그리고 《항일 무장 투쟁 시기 공청원들의 투쟁》에 대하여는 교원 초급 민청 단체 위원장 선생님으로부터 들으며 《당의 령도하에 민청이 걸어 온 길》을 브로크 공장 민청 위원장 선생님께서,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12월 확대 전원 회의에 대하여》는 리 당 위원장 선생님으로부터 각각 듣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도 공청원 리 순회 언니에 대하여 전체 분단 동무들이

연구하고 당 력사 연구실에서 리 광순 동무가 발표하도록 분공하였고 브로크 공장 천리마 작업 반장 류 문섭 아저씨를 모시고 상봉 모임을 가지기로 했습니다.

방학 동안에 《아동단》, 《혁명을 위하여》 4 권을 전체 동무들이 읽고 반 별로 토론회를 가지도록 했고 조선 예술 영화 《한 부녀회원의 이야기》를 구경하고 느낀 점을 이야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에는 민청 창립 15 주년을 기념하여 단 위원회가 조직하는 연예 써클 경연 대회에 참가 할 준비와 《소년 선전 예술대》 활동을 위한 련습을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지정 군중 무용 《아동단》, 《소년단 행진곡》, 《아름다운 우리 나라》를 김 정연 동무가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전체 동무들이 스케트를 장만하고 모두가 스케트를 탈 수 있도록 하며 아침 기상 체조를 매 일 반별로 진행하도록 지도할 것을 전 순애 동무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붉은 마음》이 란 제목으로 분단실에 벽보를 낼 것을 벽보 주필 송 명옥 동무에게 분공했습니다.

다섯째로, 방학 동안 숙제를 다 하며 1 학기에 우등을 하지 못한 동무들을 2 학기에 우등을 하도록 리 종춘, 송 명옥, 리 광순, 김 정실, 김 계화 동무들이 도와 주도록 분공했습니다.

이 밖에도 단 위원회가 조직하는 전람회에 낼 그림을 미술 크루쇼크원들이 그리며 가사 크루쇼크원인 리 채옥 동무들은 교복을 만들고 문학 크루쇼크원들은 작문을 지으며 분단에서 모범적인 일들을 모아 《아름다운 이야기》 스크랩을 만들 것을 분공했습니다.

이렇게 이 분단 위원회는 계획을 세밀하게 세우고 힘과 재능에 맞게 반 별로 또는 개별적으로 동무들에게 골고루 분공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이것이 잘 되는가를 매주 월요일에 분단 위원들과 반장들이 모여 총화를 하고 다음 주일에 할 일을 의논 하군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매 달 분단 총회에서 전체 소년단원들에게 그 정형을 알려 주고 소년단원들의 좋은 의견을 받아 새로운 사업들을 계획하고 집행해 나갔습니다. 이리하여 이 분단 사업은 날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아십니까?

퇴 비

퇴비란 짚, 풀, 쓰레기, 나무 잎, 기타 오물들을 한데 모아서 쌓고 오래'동안 잘 썩인 것을 말한다.

퇴비에는 곡식들이 자라는데 주요한 비료의 세가지 성분인 질소, 린산, 카리가 골고루 섞여 있기 때문에 많이 주면 줄 수록 땅을 기름지게 한다.

퇴비는 모래 땅이나 굳은 땅을 부드럽게 하며 푸근 푸근하게 하여 곡식들의 뿌리가 잘 뻗게 한다.

뿐만 아니라 곡식들이 자라는 데 유익한 땅 속의 세균들을 잘 살도록 돕는다. 또한 퇴비를 많이 주면 땅 속에 공기가 잘 통하게 하며 수분이 늘 스며 있게 하여 곡식들이 가물을 이겨 내게 한다.

퇴비는 밑거름으로 주는 것이 좋다. 기후가 찬 지방에서나 모래 땅 같은 데서는 잘 썩인 퇴비를 주어야 그 효과가 빠르다. 퇴비를 밑거름으로 줄 때에는 류안 비료 또는 잘 썩은 인분뇨 (사람의 똥 오줌)와 함께 주면 더욱 좋다.

퇴비를 밭에 준 후에는 비료분이 날아 나기 전에 곧 땅을 갈아 엎는 것이 좋다.

이처럼 퇴비는 땅을 걸게 하며 알곡을 증산하는 데 중요하므로 지금 우리 당 중앙 위원회 12월 확대 전원 회의 결정을 받들고 100만 톤의 알곡 증산을 위해 일떠 선 우리 나라 농촌 그 어데서나 퇴비 생산에 힘차게 나서고 있는 것이다.

우리도 알곡 100만 톤 증산을 도와 나섰다.

여보세요. 소년단 편집부 입니까? 함남 덕성군 잔흥 중학교 단 통신원 리 정배입니다.

지금 우리 학교 단에서는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12월 확대 전원 회의 결정을 높이 받들고 100만 톤의 알곡 증산을 위해 나선 아버지 어머니들을 돕는 일에 나섰습니다.

분단들에서는 《100만 톤 알곡 증산에 나선 아버지 어머니들을 돕는 일에 모두 나서자》라는 모임들을 열고 부모들을 도와 여러가지 일들을 많이 하자고 토론하였습니다.

거름 줍기, 흙구이 등 방법으로 벌써 200톤의 퇴비를 조합에 가져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부락의 여러 곳에 다가 20개의 《퇴비장》을 만들어 놓기도 하였지요.

네, 《소년 선전 예술 대》에서는 100만톤의 알곡 증산을 내용으로 한 《퇴비 더미는 쌀 더미다》 등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스케치와 노래로 위안 공연도 하며 신문과 라지오에서 보고 들은 것들을 가지고 전체 인민들이 100만 톤의 알곡 증산을 위해 들끓고 있는 모습도 이야기 합니다.

우리들의 《소년 선전 예술대》활동

네 평북 염주군 염진 중학교 단 통신원 김 영필입니다.

우리 학교 단에서는 《소년 선전 예술대》활동을 높이고 있습니다.

네?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구요.

동무들과 인민들에게 당 중앙 위원회의 12월 확대 전원 회의 결정을 받들고 100만 톤의 알곡 증산에 대한 것과 함께 나라와 사회 재산을 아끼고 사랑하며 망탕 다루거나 랑비하는 일들을 없애고 절약해서 증산해야 한다는 것들을 선전하지요.

네, 우리는 전기를 절약하자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전기를 어떻게 절약할 것인가를 가지고 그림극을 만들어 동무들과 아버지 어머니들에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142매의 전기 절약 표어를 써서 집집 마다와 거리들에 부치기도 하였습니다. 저녁이 되면 집집마다 찾아 다니며 전등'불을 끄고 자야 된다는 것도 알려 주기도 합니다.

이리하여 지금은 온 마을이 한 집도 낮 전등을 켠다든가 밤 늦게 까지 쓸데 없이 전등을 켜는 일들이 없어졌답니다.

앙고라 토끼를 더 많이

네! 여기는 평남 평원군 남산 중학교 단이예요. 통신원 정 일덕이 말합니다. 금년도 우리 분단의 토끼 사육 계획을 말하겠습니다.

금년에는 분단의 토끼 사육 계획의 80% 이상을 앙고라 종 토끼를 기르기로 하였습니다.

파지모으기에 떨쳐나선 강원도 원산 중학교단 동무들

분단의 리 신복, 리 영복 동무들은 벌써 앙고라종 어미 토끼를 6마리나 마련했습니다. 이 여섯 마리로 금년에 360마리를 키우겠습니다.

네! 분단 동무들은 방학 간에 커다란 토끼 우리를 세개나 지었지요. 새 집에 이사 온 네 마리의 앙고라 종 어미 토끼는 35마리의 새끼를 낳았습니다.

앙고라 종 토끼를 자래운 작년의 경험을 살려 보다 더 많은 토끼를 길러 내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이것을 아십니까)

토양의 종류

땅은 보통 크게 식토, 양토, 사토, 부식토 등 네가지로 나눕니다.

식토라는 것은 점토 (진흙)가 모래 보다 더 많은 땅을 말합니다.

식토는 봄에 눈 녹은 물이 오래 괴여 있으며 잘 마르지 않습니다. 또 마르면 아주 굳어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곡식들의 싹이 사토 (모래'땅) 에서보다 늦게 틉니다.

식토에는 썩은 물질이 적습니다 때문에 식토에는 퇴비나 구비 (가축들의 똥 오즘) 등을 많이 주어야 좋습니다.

양토라는 것은 점토와 사토가 서로 적당히 섞여 있는 땅을 말합니다. 양토는 곡식들이 자라는 데 적당하게 수분을 가지고 있으며 너무 딴딴하지도 않고 부스러지지도 않는 가장 적당한 땅입니다.

사토라는 것은 모래가 점토 보다 많은 땅을 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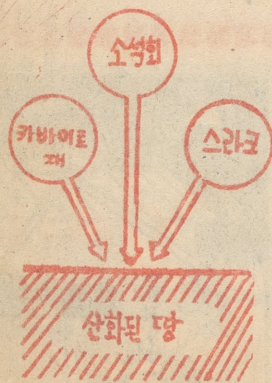
사토는 성기고 수분이 빨리 증발되며 해'별에 잘 더워집니다. 때문에 곡식들의 싹이 빨리 나옵니다. 그러나 썩은 물질과 물이 적기 때문에 비옥하지 못 합니다.

사토에도 많은 퇴비와 구비를 주어야 합니다.

부식토라는 것은 모래와 점토가 섞여 있고 썩은 물질이 많은 땅을 말합니다. 부식토에서는 곡식이 잘 되며 수확도 많이 납니다.

땅에는 그 땅에 맞는 곡식들을 심어야 좋습니다. 례를 들면 사토에는 뿌리가 강하고 잘 뻗는 호밀 옥수수 락화생 등을 심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을 아십니까)

산성화 된 땅을 어떻게 좋은 땅으로 만들가요?

땅은 자급 비료를 적게 주고 류안 비료나 인분 뇨 만을 오래'동안 계속 주면 나중에는 땅에 유기질이 적어지고 산성화되여 곡식들이 잘되지 않게 된다.

땅이 산성화 되면 땅에 있던 칼슘이나 마그네슘 같은 성분들이 적어지고 대신 수소나 아루미늄, 이온 등과 같은 성분만이 많이 남게 된다. 이렇게 되면 곡식들의 뿌리를 못쓰게 만들기 때문에 곡식들이 땅에서 영양분을 잘 빨아 올리지 못하게 된다.

산성화된 땅을 좋은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소석회, 카바이트 재, 스라크 (용광로에서 나오는 찌꺼기) 등 각종 석회 재료를 거름으로 많이 주어야 하며 유기질 비료도 많이 주어야 한다. 이렇게 하면 같은 밭에서 훨씬 더 많은 수확을 얻을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들은 우리 당 중앙위원회 12월 확대 전원 회의 결정을 높이 받들고 100만톤의 알곡 증산을 위해 땅을 살찐 땅으로 만들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 같이 일떠 서고 있다.

무대 펼쳐진 전야가 한 눈에 안겨 오는 낮은 둔덕

막이 오르면 멀리서부터 애들의 노래 소리가 차차 가까이 들려 온다. 이윽고 동일, 칠성을 비롯한 1반 동무들이 이마의 땀을 훔치며 들어 온다.

동일 (공기를 힘껏 들여 마시며) 야! 봄 바람이 향기로운게 기분이 좋구나!

칠성 오늘 랭상모 문틀 짜기에서 벌써 하자던 량을 넘쳐 했으니까 기분이 더 좋을 수 밖에

동일 응. 이제 남은 시간만 다그치면 오늘의 우리 계획은 두곱은 문제 없어

칠성 (시를 읊듯) 100만톤의 알곡 증산! 야! 벌써 저 논들에 알알이 무르익은 벼 이삭들이 넘실넘실 춤 추는 것만 같구나!

동일 저렇게 조합원 아저씨들이 겨울부터 퇴비 내기, 새 땅 얻기 논풀기에 막 떨쳐 나섰는데 왜 풍년이 안들겠니!

칠성 정말이야, 조합원 아저씨들을 도와 나선 우리도 막 신이 난다니까

△이때 멀리서 뜨락또르 엔징 소리와 2반 동무들의 노래 소리가 들려 온다

애 1 애들아! 저기 2반 동무들이 오누나

동일 응? 저 애들은 퇴비 운반을 돕는다더니 척 뜨락또르까지 타구 다니누나,

칠성 애들아 우리 불러 볼가?

애들 그래

칠성 그럼 날 따라 다 함께 부르자, 2반 동무들!

애들 2반 동무들!

소리 어-

칠성 수고한다—

소리 너희들이 수고한다—

동일 운전수 아저씨 수고하십니다!

소리 괜찮다!

애 1 저것 봐! 련결차 적재함두 자동화가 돼서 저렇게 많이 실은 퇴비를 눈 깜박할 사이에 다 부렸구나

△이때 칠성은 한켠에 앉아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다.

애 1 애들아! 2반 애들두 이리루 오누나

동일 저 애들두 휴식할 모양이지?

애 1 (눈을 숨벅해 보이며) 우리 저애들을 환영곡으로 맞이하는게 어때?

애들 뭐?! 옳아 옳아 (무슨 영문인가 했다가 인차 알아 차린듯)

애 1 모두 입으로 환영곡을 불란 말야, 환영사는 내가 할테니…알겠지?…자 온다 와! 딴딴딴…딴딴딴 (입으로 환영곡을 부르자 애들두 따라 부른다)

△2반 동무들은 들어 와 어리둥절한다

애 1 (2반 애들 앞에 척 나서며) 퇴비 운반에서 기적적인 성과를 올리신 2반 동무들! 나는 우리 1반을 대표하여 동무들에게 열렬한 축하를 드립니다 (2반 반장인 영옥에게 소년단 경례를 한다)

영옥 (얼굴이 빨개지며) 어마나! (쩔쩔 맨다)

1 반 애들 (좋아라 하고 손벽을 친다)

동일 수고들 했어! 여기들 와 앉아

영옥 (눈을 흘기며) 애들은 사람을 그렇게 놀리는 법이 어데 있니!

애 1 놀리긴? 정말 너희들이 수고하니까 그랬지

영옥 너희들은 오늘 얼마나 일했니?

동일 그저 그렇지 뭐

영옥 얘, 너무 뽐내지마 좀 대주면 못쓰니?

동일 이제 마저 다 하면 처음 하자던 것보다 두곱은 했을가?

영옥 아유 두곱! 굉장히 했구나!

애 1 왜 너희들은 그만큼두 못했니!

영옥 뭐 우리야 이제 두시간만 나르면 오늘 하자던 걸 한 두곱 할가?

애 1 뭐? 두곱?!…아니 그럼 너희들두 우리들과 같은 셈이구나!

영옥 그쯤 되겠지 뭐

애 1 히야! 슬그머니 뽐내누나!

애들 (유쾌하게 웃는다)

영옥 그건 아무것두 아니야 순희네 오빠는 오늘 벌써 혼자서 10톤의 개바닥 흙을 파 날랐대,

동일 야! 금년엔 벼 정당 8톤은 문제 없겠구나!

영옥 문제 없지 않구(그림을 그리고 있는 칠성을 발견하고) 아니 넌 무슨 그림을 그리고 있니?

애들 어디 좀 보자!(칠성을 둘러 싼다) 야! 멋있게 그렸구나!(감탄들 한다)

영옥 여기 이 집이 구락부구나?

칠성 응 이게 새로 지은 유치원이구 이게 농업 기술 학교야,

영옥 아유! 저 많은 집들을 어데다 다 그려 넣겠니

동일 정말 우리 마을은 몰라보게 달라졌어, 정전되던 해만 해두 저기야 벌판 아니댔니?

영옥 정말이야 전기'불두 없던 두메 산'골 우리 마을에 지금은 여기저기 스피카에서 아름다운 노래가 흘러 나오구 오막살이 집 대신에 2층 3층 문화 주택이 우뚝우뚝 일어서구…야 난 꼭 미술가가 돼서 우리 마을을 멋지게 그려 볼테야

영옥 난 뜨락또르 운전수가 돼서 저 논발을 힘껏 갈아 번지구…참 볼수록 우리 마을은 아름다워

△두애는 자기들도 모르는 새에 시가 나온다

영옥— 둔덕에 올라서면
한 가슴에 안겨 오는 고향의 벌판
뭉게뭉게 땅김이 피여 올라
흙 냄새도 구수하구나
우리 고향 기름진 논발은

칠성— 아지랑이 아롱아롱
우리들을 부르며 춤을 추는듯
하늘에 펴져가는
발같이 노래 정다운 전야

애들 (손'벽 치며) 야—멋있는데

애 1 영옥인 뜨락또르 운전수가 되겠다더니 시

원쑤 미제는 나가라!

인이 돼야겠구나

애 2 칠성이두 미술가 대신 시인이 돼야겠다

영옥 그만 둬! 너희들이면 시가 안 나올줄 아니?

애 3 괘니 싱겁게 시가 나올가?

영옥 뭐? 넌 그럼 우리 마을 부모들이 백만톤 증산을 위해 저렇게 일하시는데 마음에 들지 않는단 말이냐?

애 3 얘가? 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릴하니!

영옥 넌 저렇게 알곡 증산을 위해 힘쓰는 조합원들을 보구두 아무 느낌두 없단 말이지!

애 3 왜 안 느껴! 막 시가 나오려는데.

영옥 근데 뭘 그래!

애 1 응 그래서 그렇게 시가 잘 나오는구나.

애들 (가볍게 웃는다)

애 1 우리 이번 일요일에 조합원 아저씨들을 위안해 드릴 써클 련습을 좀 할가?

애들 좋아!

애 3 (앞으로 척 나서며 큰 소리로) 우리 당 중앙 위원회 12월 확대 전원 회의 결정을 받들고 100만톤의 알곡 증산에 나선 여러 조합원 아버지, 어머니, 형님, 누나들! 지금으로부터 우리 학교 연예 써클원들이 준비한 공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처음 순서로 노래와 춤 《풍년이 왔네!》

△소개가 끝나자 노래와 춤이 벌어진다 (적당한 것으로)

(노래와 춤이 끝나자 무대 앞으로 나서며)

영옥 조국은 부른다
백만톤의 알곡을 더 내라고
마을마다 황금나라
태산처럼 쌓으라고

동일 조선 로동당은 부른다
한 알의 낟알도 더 내여
500만 톤 고지 우에 승리의 붉은 기를 휘날리라고

애 1 그러기에 보라!
우리 마을 조합원들
청산리의 본을 받아
절반은 뛰여 다닌다

애 2 뛰여 다녀도 성차지 않아
마음의 날개를 돋혀
달음박질 친다.

영옥 7 개년 높은 고지를 바라보며
풍년의 새 고지에 휘날릴
영광의 기'발을 가슴에 안고
새 전투를 시작했다.

일동 당의 부름 따라서
백만톤 증산을 위하여!

애 1 눈보라 이는 겨울 날에도
민청원 형님 누나들
언 땅을 팠단다.

칠성 땅을 기름지게 하려고
개 바닥 흙을 파냈단다

동일 거름 데민 쌀데 미라고
감탕 흙도 파냈고
부식토도 모았단다.

애 1 나무 잎 긁어 태우고
나무 뿌리 풀 뿌리도 태웠단다.

애 2 한 겨울 태산처럼 쌓은 두엄데미
논밭이 보이지 않도록 깔았단다

애 3 좋은 종자도 듬북
마련해 두었단다
땅에 맞추어 심을 종자
알알이 골라 두었단다

애 2 쌀을 많이 거두려면
새 땅도 많이 얻어야 한다고
조합원들 떨쳐 나섰단다
논 밭을 새로 일궜단다

칠성 천리마로 달리는 조합원들
정말 모른단다 겨울을!
마음 속에 꽃을 피우며
다가 오는 봄을 앞당겼단다.

애 1 황금 나라 너울너울
풍년이 춤추며 오라고

영옥 수령님이 다녀 가신 청산리처럼
우리도 그 영광 지니자고
아저씨들 신바람 났단다

동일 황금 산이 따로 있다더냐
우리 고향 앞뒤'산도
황금 산 만들자고
온 마을이 일떠 섰단다.

애 1 놀랍구나 아저씨들의 힘

애 2 우리 마을 조합원들
그 힘이 놀랍구나

영옥 그러기 천리마의 농민이란다

칠성 조선 로동당의 붉은 농민이란다

일동 그렇구나 정말
천리마의 억센 투사들이다

영옥 랭상모 파릇파릇
봄 바람에 춤을 추는데
들판에 넘치는 발갈이 노래

동일 우리들 가슴에도 벌써
대 풍년의 가을이 찾아 온듯…

애 1 논 발마다 바라보면
보이누나 금 물'결 파도 치는

오곡의 전야가!

애 2 70평생 처음으로
큰 풍년을 보셨다는 우리 할아버지
어깨 춤 덩실덩실
분배장에 꽃을 피우며
스므 해는 더 살고 싶다고

애 4 어찌 스므 해만이랴
설흔 해 마흔 해는 더 계셔야지.

영옥 아무렴 백세를 넘겨야지
해마다 더 큰 풍년
이 땅에 찾아 오는데

애 3 수령님의 뜻을 따라
해마다 만 풍년이
이 땅에 찾아 오는데

영옥 동무들아!
온 마을이 끓누나
온 마을이 불덩이구나

일동 백만 톤 증산을 위하여
풍년의 고지에
승리의 기'발을 꽂기 위하여!

애 1 백만톤 증산의
풍년가 높이 울리는 가을이 오면
우리도 자랑하자 노래하자

애 2 아저씨들 도와 드린 우리 로력도
알알이 여물었다고

동일 황금 나라 높이 쌓아 놓고
당에 드린 맹세 지켜낸 기쁨
온 누리에 넘치도록 자랑할 때

애 3 남녘 땅 형제들의 가슴에도
황금 이삭 물'결치도록
이땅 우에 쌓아 올린 새 기적 자랑할 때

애 1 우리도 높이 부르자 풍년의 노래!

일동 높이 울리자 풍년의 북을!

(노래 《풍년 북을 울리라》 합창)

칠성 우리도 자라면은
마을의 주인

영옥 협동의 전야에 나설
새 세대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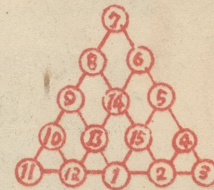
애 1 그러기에 우리도 나섰다
백만톤 증산의 전투장에!

애 2 500만 톤의 고지를 향하여
우리도 달려 간다
나 어린 천리마 기수들

일동 천리마! 천리마를 타고
우리도 달려 나간다,

흥미 있는 오락

14개의 말 옮기기

7, 8, 6, 9, 14, 5, 10, 13, 15, 4, 11, 12, 1, 2, 3

그림과 같은 판과 14개의 말을 준비한다. 다음 판의 수'자 (1)지점을 빼놓고 기타 전체 지점(동그라미)에 말들을 배치한다.

말 쓰기는 다른 말을 하나씩 뛰여 넘어 그 다음 빈 자리로 옮기는데 이때 (한칸씩) 뛰여 넘은 가운데 말은 놀음에서 떨어져 나간다.

이렇게 하여 제일 적은 회수(13회)로서 마지막 한말만 남기고 전부 떨어지도록 하면 이기게 된다.

(노래 《우리는 천리마 꼬마 전사》 합창)

영주 얘들아! 이러다간 하루 해를 다 지어도 끝이 없겠다. 이젠 일을 시작하는게 어때,

칠성 그래 (무대 앞으로 나서며)
1반 동무들! 이제 남은 시간에 우리는 2반보다 더 앞서 해 제끼자

영옥 뭐? 우리가 너희들에게 질 줄 알아!
(역시 무대 앞에 나서며)
2반 동무들! 우리는 1반보다 더 앞서 나갑시다!

칠성 (지지않으려고) 우리도 앞서 나갑시다

영옥 우리도 단단히 차비를 하고 달려 붙읍시다.

칠성 우리는… (하다가 애들을 둘러 보고 싱긋 웃으며) 그럴게 없이 아무 반이나 하자던 것보다 먼저 더한 반이 딴 반을 도와 줘서 모두다 두곱 이상의 성과를 올리는게 어떠니?

애들 좋아! 모두 찬성이야

칠성 자, 그럼 모두 자기 작업장으로!

△애들 노래하며 자기 반대로 줄을 지어 무대 량켠으로 씩씩하게 퇴장한다.

음악 이야기

(2)

악보 읽는 법

노래를 정확하게 부르자면 누구나가 악보를 볼 줄 알며 악보에 표시된 약속된 부표들을 알아야 합니다.

악보를 읽는 훈련을 《시창》이라고 하며 이러 저러한 약속된 표들을 공부하는 것들을 《악전》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악보와 시창을 전부 다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많이 부르는 쉬운 노래들을 악보만 보고도 혼자서 부를 수 있도록 도움이 되게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물론 악보만 보고도 노래를 부를 정도로 되자면 상당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우선 악기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정확한 음을 많이 듣고 음의 높이, 음의 길이, 음의 색'갈 등을 가려내는 훈련을 또한 함께 해야 합니다.

악보에는 무엇이 표시되는가?

우리들이 알고 있는 모든 노래들은 높은 음과 낮은 음 짧은 음과 긴 음들이 서로 엇바뀌면서 재미있게 놓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선 악보에는 음의 높이와 음의 길이가 표시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음의 높이에 대하여 보기로 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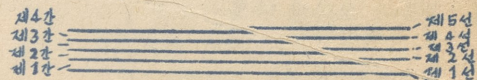
음악에는 서로 다른 높이를 가진 많은 음들이 있습니다 (피아노에는 서로 다른 높이를 가진 88개의 음들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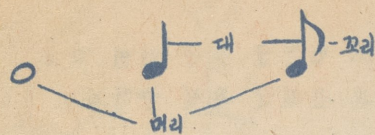
우리가 피아노나 풍금을 보면 거기에는 많은 누루개가 있으며 그 누루개 가운데는 검은 것도 있고 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누루개들은 왼쪽으로부터 바른쪽으로 즉 낮은 음으로부터 높은 음에로 음의 높이의 순서에 따라 놓여 있습니다. 여기에서 검은 누루개에 대한 이야기는 후에 하기로 하고 흰 누루개만 보기로 하겠습니다.

피아노나 풍금의 흰 누루개에서 나는 음들을 기본 계단이라고 하는데 이 기본 계단에 있는 음들의 이름은 모두 다른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즉 그 많은 음들은 왼쪽에서 바른 쪽으로 도, 레, 미, 화, 쏠, 라, 씨의 일곱개의 이름으로 불리우되 그것이 반복됩니다.

즉 도 레 미 화 쏠 라 씨 도 레 미 화 쏠 라 씨 도 레… 등 그리하여 《도》에서부터 다음 《도》까지 사이를 옥타브라고 부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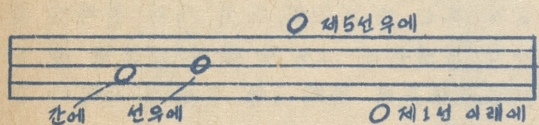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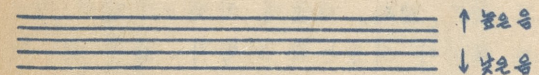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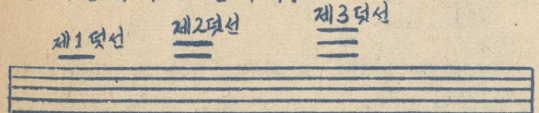
이와 같은 음들의 높이를 기입하기 위하여서는 다섯개의 평행선을 사용하는데 이것을 《악보표》라고 합니다.

다섯 개의 선은 밑으로부터 우로 향하여 제 1선, 제 2선, 제 3선, 제 4선, 제 5선이라고 부르며 선과 선사이 칸도 제 1간 제 2간, 제 3간, 제 4간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에 음을 표시하기 위하여서는 소리표 (음부)를 사용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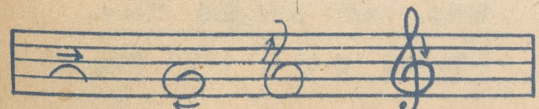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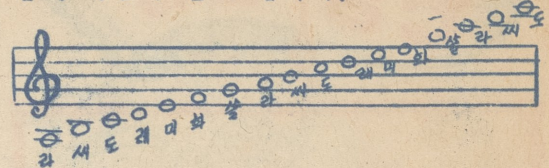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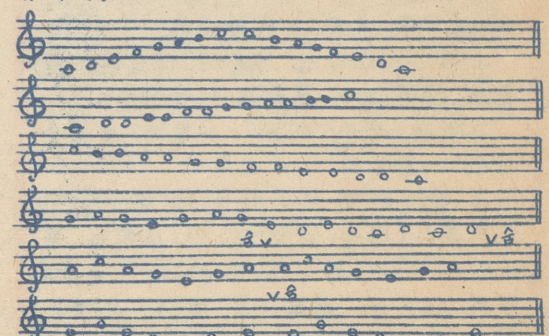
소리 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머리와 대로서 이루어 진 것도 있으며 그 밖에 꼬리를 가진 것도 있으며 머리 만으로 이루어 진 것도 있습니다.

소리표에 대한 더 자세한 것은 음의 길이를 설명할 때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악보표와 소리표를 어떻게 적는가?

소리표들은 어떻게 적는가.

소리표들은 선우에 또는 칸에 적으며 제 5선 위에 또는 제 1선 아래에도 적습니다.

악보표에서는 우로 갈수록 보다 높은 음을 표시하며 아래로 갈수록 보다 낮은 음을 표시합니다.

더 높은 음과 또는 더 낮은 음을 표시하기 위하여서는 5선 우 또는 아래에 덧선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에서 설명한 악보표의 어떤 자리에 소리 표만 적어 넣으면 음의 높이가 표시되는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음의 높이를 표시하기 위하여서는 음 높이 표라고 하는 표를 악보표의 첫 머리에 써 넣어야 합니다.

음 높이 표에는 《쏠》 음표(𝄞)와 《화》 음표(𝄢)가 있는데 여기서는 《쏠》 음표에 대해서만 설명하기로 하겠습니다. 《쏠》 음 표는 제 2선으로부터 시작하여 다음과 같이 그립니다.

그리하여 이 《쏠》 음표가 시작되는 제 2선을 《쏠》 음으로 정하고 여기서부터 아래 위로 기본 계단의 음의 이름 순서대로 음의 이름이 붙게 됩니다.

그러면 우에서 배운데 기초하여 피아노 또는 풍금 기타 악기의 도움을 받으면서 다음에는 악보들을 련습하여 보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호 계속)

동요

고향 가고 싶대요

기차가 칙—칙— 푹 푹—
집 앞을 지날 때면
내 동생 영남이도 기관사가 되지요

형님이 사다 준 장난'감 기차를
한줄에 주루룩 매여 가지고
공화국기 날리며 남녘땅 고향 간대요.

《집짓기 놀음'감》 앞에 싣고요
칙칙 푹푹 달리며 영남이는 말해요
기울어진 초가집을 아빠트로 짓겠다고

남녘 땅에 계시는 할머니 보고 싶다
《미국놈은 물러가라!》 소리 높이 웨치며
차'간마다 가득가득 선물 싣고 간대요

기차놀이 신이 난 내동생 영남이
나더러 학교 갔다 어서 오래요
꼬마 기차 타고서 함께 가자고

자강도 자성군 대남 중학교 단
김 동수

알아 마치기

영철이네 학교에서는 올해에도 많은 토끼를 기를 계획입니다.

그래 벌써 작년 가을에 석비례 벽돌로 많은 토끼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아세요?

첫 달에는 한 마리의 어미 토끼가 두 마리의 새끼를 치고 한 달 후에는 두 마리의 새끼 토끼가 자라나서 네 마리의 새끼를 치고 또 한 달 후에는 네 마리의 새끼가 자라나서 여덟 마리, 그 다음 달엔 열 여섯 마리, 그 다음 달엔 서른 두 마리… 이렇게 해서 1년 후에 자기들이 미리 지어 놓은 토끼 우리에 토끼가 가득 차도록 할 계획이랍니다.

자—영철이네가 만들어 놓은 토끼 우리에 토끼들이 절반 가득 차는건 어느 때일가요? 알아 맞혀 보세요.

1960년 12호 현상 문제 당선자

량강도 혜산시 혜명 중학교 김 학성
개성시 자남 중학교 최 혜정
강원도 통천군 송전 중학교 김 정남
황남도 벽성군 원평 중학교 박 연옥
평북도 구성군 차흥 중학교 리 진호
평북도 룡천군 룡암포 중학교 김 관준
함남도 함흥시 함흥 초등 학원 리 혜선
강원도 법동군 갑둔 인민 학교 박 충근
황남도 은천군 은천 중학교 서 용국

1960년 12호 현상 문제 답

(ㄱ) 활차 1, 2, 3은 시계 바늘이 도는 쪽으로 돌고 있으며 4, 5는 반대 쪽으로 돌고 있다. 때문에 도끼 날을 갈려면 시계 바늘이 도는 방향으로 다섯 개의 활차가 돌아야 되겠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갈 수 없다. 때문에 활차 4와 활차 5 사이에 활차 하나가 더 요구된다.

(ㄴ) 치차 1, 3,5는 시계 바늘이 도는 쪽으로 돌고 있으며 치차 2, 4는 반대 쪽으로 돌고 있다. 때문에 치차 5가 반대 쪽으로 돌아야 되겠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도루 내려 가고 있다.

올리려면 치차 하나를 없애거나 하나가 더 있어야 한다.

(ㄷ) 자전거의 치차 4, 2는 시계 바늘의 방향으로 1, 3은 반대 쪽으로 돌고 있다.

앞으로 나가려면 치차 1이 4와 같이 시계 바늘의 방향으로 돌아야 되겠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나갈 수 없다.

조선 민주 청년 동맹 중앙 위원회 소년 잡지
《소년단》 1961년 제 2 호 (총136호)

편 집 위 원 회

발행소 민 청 출 판 사
인쇄소 로동 신문 출판 인쇄소

ㄱ—32034 값 25 전 150,000부 발행

피마주, 해바라기를 더 많이 심자!